

발간등록번호

11-1380000-002519-01

우수 진도개 혈통고정 및 육성방안 연구



농림자료실



0013798

2007년 12월

농 립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우수 진도개 혈통고정 및 육성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20.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이 재 일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2
2. 연구기간	3
3. 용역기관	3
4. 연구진	3
제2장 진도개의 현황과 분포 실태 조사	4
1. 진도개 기원	5
2. 진도개 연혁	5
3. 진도개 모색(毛色)	9
4. 진도개 사육현황	11
제3장 진도개의 표준체형 검토 및 표준체형 통일화	15
1. 진도개 표준체형	16
2. 진도개 표준체형의 통일화 필요성	18
3. 진도개 표준체형의 변천사	19
4. 진도개 체고 및 체장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의 분석	22
5. 진도개 표준체형과 주요 연구논문 결과의 비교분석	25
6. 진도개 표준체형 통일화를 위한 제언	27
제4장 진도개의 품성과 진도개 육성 방안	29
1. 진도개 표준 품성과 해설	30
2.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진도개	32
3. 향후 진도개의 진로	34
제5장 우수 진도개 혈통고정 방안	36
1. 진도개 혈통고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미흡	37

2. 진도개의 육종(개량 번식 방향)에 관한 연구 부재	8
3. 진도개의 육종 방향과 혈통고정	8
제6장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	47
1.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48
2.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구성	49
3.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기대효과	55
제7장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진도개 육성 방안	58
1.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 증대방안	59
2.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부족	66
3. 진도개 사육농가의 진도개 보호의식 고취	67
4. 혈통고정을 통한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향상 방안	70
제8장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71
1. 애완산업의 현황 및 전망	72
2.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75
3. 진도개 홍보전략	76
제9장 결 론	78
제10장 참고문헌	81
제11장 부 록	86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	87
별첨 2. 진도개 체형 관련 주요 연구논문	91
별첨 3. 진도개 성별 체고 및 체고대 체장비	92
별첨 4.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98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___2
2. 연구기간 ___3
3. 용역기관 ___3
4. 연구진 ___3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 1993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각기 보유하고 있는 “종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각 나라 고유의 종자들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모든 현실을 감안할 때 진도 고유의 품종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된 진도개는 우리나라의 고유견이라는 중요성 이외에도 농가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도개 관련 단체가 너무 많으며 이 단체들마다 표준체형 기준이 다르고 자체심사를 통해 진도개에 대한 혈통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함
 - 즉 공인된 혈통증명서 발급 및 관리가 미흡하여 진도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진도개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진도개는 특히 진도에서 농, 어업을 제외하고는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수 혈통 종견을 사육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우수 혈통 종견의 집중 보호육성이 요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도개의 혈통고정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진도개의 표준체형을 포함한 정확한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진도개 육성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 다음 진도개 혈통관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2.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1일까지 실시되었음

3. 용역기관

전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 재 일)

4. 연구진

직책	성명	소속	직위·학위	분담업무
총괄 연구책임자	이재일	전남대학교	교수박사	연구의 총괄
연구원	박영석	공주대학교	부교수박사	진도개의 외적 표준과 혈통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연구원	이지웅	전남대학교	조교수박사	진도개의 혈통 고정 및 육성방안 연구
연구보조원	고혁주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진도개 품성과 육성방안 연구
연구보조원	김명화	전남대학교	연구원	문헌 조사 및 자료 분석
연구보조원	강정아	공주대학교	연구원	진도개의 외적 표준과 혈통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조원	김양섭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진도개의 혈통 고정 및 육성방안 연구

제2장

진도개의 현황과 분포 실태 조사

1. 진도개 기원 ___5
2. 진도개 연혁 ___5
3. 진도개 모색 ___9
4. 진도개 사육현황 ___11

제 2 장 진도개의 현황과 분포 실태 조사

1. 진도개 기원

- 진도개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문헌상의 근거는 없고 다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설(說)만이 있을 뿐임
- 진도개의 기원은 진도 현지에서 구전되어오는 속설에 근거를 두어 중국의 송나라 개나 몽고개가 진도개의 선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되기도 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음
- 지금까지 수행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와 역사적인 기록을 종합해보면 진도개는 석기시대의 사람들이 기르던 개의 후예가 중앙아시아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다른 지역의 개들은 잡종화가 되었지만 진도개는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혈통과 야성을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토착화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토종견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진도개는 우리의 고유한 토종개로 인식되어야 함

2. 진도개 연혁

진도개는 몇 단계의 보호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참조).

1) 1938년 이전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의 단계로 오래전부터 진도 안에서는 물론 인근육지에서 진도개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사냥이나 집지키는 개로 이용되었음

2) 1938 - 1945년

- 朝鮮寶物古蹟名勝 天然記念物 保存令의 보호를 받게 된 진도개는 1939년부터 등록되어 심사를 받기 시작했음
- 이어 반출금지, 다른 견종과의 혼혈방지, 불량견의 도태 등을 실시하였으나 효율적이지는 못했음

3) 1945 - 1960년

- 진도개 보호사업의 공백기로서 해방 이후 진도개는 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음
- 1952년부터 진도개 보호업무를 맡아온 진도군 교육구청은 1955년에 천연기념물 진도견 보호조례를 만들어 공포하고 1957년에는 비교적 우량해 보이는 개 168마리를 국비보조금으로 사들여 예탁사육을 시도하기도 했음
-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육지 사람들의 사육열 때문에 좋은 개는 모두 진도 밖으로 팔려나가고 거기다 제주와 해남에서 개가 진도로 반입되는 기현상까지 일어났음

4) 1961 - 1966년

- 진도군 교육구청이 진도 군청으로 흡수되면서 진도개 보호업무는 군의 축정계에서 맡게 됨
-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으로 다시 천연기념물이 된 진도개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부의 주관하에 진도군에서 보호육성책을 세웠으며, 다시 예탁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군조례를 만들어 사육의 지도와 등록을 실시했음
- 한편 1966년에 전라남도는 진도군과는 별도로 진도개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진도견 보호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공고하였고 그 위원회에서 진도개의 표준체형이나 심사기준을 만들

5) 1967년 이후

-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진도개의 보호나 육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 1875호로 공포되었는데, 그 법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보호 및 번식지구의 설정, 등록 및 신고, 심사, 혈통고정을 위한 조치, 보육조합의 설립, 반출입의 제한, 사업의 국고보조, 법위반에 따르는 과료와 벌금 등을 규정했음
- 이어서 이 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진도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첫 회의에서 표준체형을 정하면서 ‘모색은 황색 또는 백색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시행착오를 범함
- 1968년에는 진도견 보육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진도군은 군청이 관장하던 대부분의 진도개 업무를 조합에 넘겨주었음
- 조합중심의 보육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75년에는 진도군에 진도견보육관리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에는 진도개축산사업소에서 진도개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진도개의 고유 혈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1967년 1월 16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제정하여 1969년 1월 28일 1차 개정하였으며,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견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을 거쳐 1999년 1월 29일 3차 개정이후에 이르고 있음

표 1. 진도개 연혁

시 기	특기사항
1946 - 1961	교육청에서 보호업무 관장
1962. 12. 3	천연기념물 제 53호 지정
1966. 6. 9	진도개 보호 대책위원회 설치(도조례274호)
1967. 1. 16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 제정
1968. 5. 18	한국 진도개 보육관리소 설치
1968. 5. 28	한국 진도견 보육 협동조합 설치
1968 - 1974	진도견 보육협동조합에서 보호사업추진
1975. 6. 1	진도군 한국진도개보육관리소 설치(설치조례285호)
1992. 4. 8	ASIA 축견연맹(AKU) 공인
1993. 4. 23	진도의 진도견 → 진도의 진도개로 명칭변경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3-4호)
1995. 3. 9	세계명견 공인 (FCI. 국제축견연맹)
1997. 8. 22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2차)
1998. 4. 18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1999. 1. 29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3차)
1999. 6. 14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1999. 11. 13	진도군 진도개 축산사업소 설치 (사육장, 훈련장, 진료실)
2002. 3. 21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2003. 12. 6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3. 진도개 모색(毛色)

- 오래전부터 진도개는 여러 가지의 모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그 최초의 기록을 보면 진도개의 모색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나타나는 색깔은 광택이 나는 적자색(赤茶色), 고색, 흑색(黑色), 백색(白色, 그림 2), 그리고 백색 바탕에 흑색 또는 적색의 반점을 가진 것들이며 드물게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의 띠를 두른 호랑이무늬와 비슷한 것이 있어 호랑이개(그림 6)라 부른다고 적혀있음



그림 1. 진도개 황구



그림 2. 진도개 백구

- 그 다음 기록에도 호반(胡麻), 적(赤), 황(黃, 그림 1), 흑(黑, 그림 3), 호(虎, 그림 6), 백(白) 등의 색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림 3. 진도개 흑구



그림 4. 진도개 재구



그림 5. 진도개 흑구(네눈박이)



그림 6. 진도개 호구

- 이러한 문헌상의 모색은 현지의 나이가 든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이라는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조사에서도 진도개의 모색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개가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되어야 하며, 품성보다 보기 좋은 외모를 취하는 근래의 경향에 따라 우선 보기에 좋은 백구와 황구만을 진도견으로 삼아 혈통을 고정하자는 주장과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제정으로 황, 백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가진 개들은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태의 대상이 되어왔음
- 이러한 털 빛깔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진도개의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의 애견가들은 물론 진도 밖의 애견가들도 모색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품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 희귀한 색깔의 개를 귀하게 보존하고 있음

4. 진도개 사육현황

진도군의 진도개축산사업소가 조사한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도개 사육두수를 표 2에 나타냈다. 진도군 전역에 걸쳐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그림 7)는 한 농가에서 평균 2.7마리를 기르고 있고, 진도군내의 1개 읍과 6개 면에서 골고루 사육되고 있으며, 3,077호 농가에서 8,510두의 진도개가 사육되고 있었다. 그리고 황구보다는 백구를, 수컷보다는 암컷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도군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의 두수(2006년 12월 31일 기준)

지역	농가수	황 구			백 구			기타	총계
		암	수	소계	암	수	소계		
진도읍	649	617	187	804	755	261	1,016	13	1,833
군내면	409	340	129	469	853	292	1,145	33	1,647
고군면	504	340	75	415	532	111	643	27	1,085
의신면	573	394	86	480	747	121	868	2	1,350
임회면	423	312	50	362	396	97	493	3	858
지산면	409	251	68	319	910	241	1,151	15	1,485
조도면	110	84	45	129	75	48	123	0	252
계	3,077	2,338	640	2,978	4,268	1,171	5,439	93	8,510

연도별 사육농가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1990년을 정점으로 사육농가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육두수도 약간씩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 당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다두 사육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참조).

표 3. 진도개의 연도별 사육현황

연도	사육농가수	사육두수			등록두수	도태두수	반출두수	
		계	암	수			승인량	반출량
'65	4,323	7,003	-	-	-	-	-	-
'70	4,420	6,130	-	-	-	-	-	-
'75	4,420	6,140	-	-	-	-	-	-
'80	5,009	7,013	5,155	1,858	-	-	-	-
'82	4,188	5,715	4,623	1,092	-	-	-	-
'85	4,922	6,317	5,071	1,246	-	-	-	-
'90	7,149	11,909	9,929	1,036	5,373	2,440	2,000	1,872
'91	6,772	13,367	10,458	2,909	5,124	3,880	2,000	1,926
'92	7,088	14,854	12,252	2,602	5,595	4,105	3,000	2,258
'93	5,405	11,200	9,054	2,146	5,853	4,868	3,000	2,631
'94	5,033	11,471	8,868	2,603	6,136	7,741	3,000	2,799
'95	5,514	13,233	10,846	2,387	7,444	8,791	3,000	2,800
'96	6,017	16,036	12,963	3,073	9,622	10,665	3,000	2,989
'02	4,359	14,839	11,863	2,976	-	6,052	-	-
'03	3,586	12,885	10,044	2,841	-	7,183	-	-
'04	3,627	12,882	9,802	3,080	-	7,266	-	-
'05	3,082	11,153	8,451	2,702	-	3,916	-	-
'06	3,160	8,562	6,779	1,783	6,649	3,785	-	3,785

그리고 2007년 12월 현재 진도군 관내 진도개 등록견 두수는 총 7,470두이며, 역시 황구보다는 백구를, 수컷보다는 암컷을 더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년 진도개 반출두수는 총 3,785마리로 암컷이 1,999두, 수컷이 1,786두로 암수 성비가 유사하게 반출되고 있었다 (표 4~6 참조).

표 4. 읍면별 진도개 등록두수 (2007. 12)

구분	합계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등록견	7,470	2,528	1,109	909	988	816	888	232

표 5. 모색 암수별 진도개 등록두수(2007. 12)

구분	성 별		모 색		
	암	수	황(암/수)	백(암/수)	기타(암/수)
등록두수	6,559	911	2,678 (2,368/320)	4,724 (4,149/575)	68 (52/16)



그림 7. 진도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

표 6. 진도개 연간 반출두수(2006)

구분	성별			모색			
	계	암	수	계	황	백	기타
반출건	3,785	1,999	1,786	3,785	1,797	1,802	186

○ 관외 진도개 통계

진도외의 육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 마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97년 에버랜드 동물원이 국내 3개 애견단체에 등록된 견종별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진도개의 숫자가 19만6천여 마리로 2위인 요크셔테리어 1만1천9백여 마리에 비해 무려 18만 마리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3개 단체 등록건에 제한된 수치이므로 타 단체 등록건이나 미등록건, 원산지인 진도까지 포함한다면 진도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개일 것이다. 이처럼 진도개의 사육두수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 토종 개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와 구별되는 우수한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3장

진도개의 표준체형 검토 및 표준체형 통일화

1. 진도개 표준체형 ____16
2. 진도개 표준체형의 통일화 필요성 ____18
3. 진도개 표준체형의 변천사 ____19
4. 진도개 체고 및 체장 관련 주요 연구논문의 분석 ____23
5. 진도개 표준체형과 주요 연구논문 결과의 비교 분석 ____26
6. 진도개 표준체형 통일화를 위한 제언 ____27

제 3 장 진도개의 표준체형 검토 및 표준체형 통일화

진도개를 보거나 사진을 한 장(그림 8 참조)을 보면서 ‘선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윗대에 무슨 종류의 개의 피가 섞여 있다’, ‘사냥을 잘 하겠다’ 등의 개를 보고 선이나 맛을 논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태도일 것이다. 직관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感)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하다. 심지어는 진도개를 근거도 없이 잡종이라고 혹평하는 사육가까지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의해 진도개가 평가되는 것은 진도개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진도개의 외적표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표준체형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림 8. 여러 마리 진도개들의 사진

1. 진도개 표준체형

진도개의 표준체형은 형태적인 특징이나 성품 등을 객관화하여 지표화 함으로써 진도개 심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종의 진도개 표준규격서이다. 이 진도개의 표준체형은 1967년 5월 7일 진도개심의회 1차 회의에서 표준체형을 결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되다가 2002년 9월 27일 진도개심의회 3기 회의에서 현재의 진도개표준체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표 7. 한국 진도개 표준체형

구 분	표 준 체 형
일반 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수의 식별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체형이 잡힌 중형견으로서 민첩한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모견(♂) 48cm ~ 53cm ■ 종빈견(♀) 45cm ~ 50cm
머리와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에서 볼 때 이마는 넓고, 귀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형태로 머리와 알맞은 조화를 이루고 운동이 극히 활발하고 앞으로 숙여서 있어야 한다.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형인 눈 끝이 위로 향하고 안색은 일반적으로는 농갈색이며 투명하고 광채가 나야 한다.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색을 원칙으로 한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하고 직선이어야 하며 등의 앞부분이 약간 높아야 한다.
가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늑골은 탄력성이 있고 가슴은 잘 발달되고 적당히 깊으며 너무 넓지 않다.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직립이 되어야 한다. ■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서 몸체를 전방으로 미는 인상을 주며 힘있게 밟아야 한다.
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알맞게 굽고 힘있게 올려지고, 길이는 정강이까지 닿는 것이 바람직하다.
털과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모가 이중모이며 겉털은 뺏뺏하고 윤택하며 속털은 부드럽고 조밀하다.
걸음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음걸이와 뛰는 모습은 자연적스러워야하며, 뒤에서 볼 때 앞다리가 직선이어야 하고 옆에서 볼 때 등이 곧아야 한다.
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갈색(赤葛色)을 원칙으로 하며,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에 균형있게 나와 있어야 하며 산발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오그라들지 않아야 한다.
이(치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하고 치열이 고르며 위아랫니가 잘 교합을 이루어야하며 결치가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성, 용맹, 경계, 수렵 및 귀가본능, 결백, 대담,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2. 진도개 표준체형의 통일화 필요성

- 우리나라 고유 토종견인 진도개는 1940년 모리(森蔭三)교수가 진도개의 우수성과 체형의 특징을 보고한 이후 진도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인 활동은 1970년 이후부터 진도개의 형태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및 표준체형의 규격화를 위해서 정부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애완동물 특히, 애견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진도개 혈통서를 발행하는 일부 관련단체들의 난립과 각 단체마다 한 품종인 진도개의 표준체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어 진도개 관리와 우수 진도개 선발 등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특히 한국애견연맹(KKCF)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진도개가 2005년 세계축견연맹 (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FCI)에 공식 등록되었지만, 진도개의 원산지이며 국가 주도 진도개의 심사를 주관하는 진도개축산사업소 및 진도개심의위원회에서 1998년 5월 심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진도개표준체형과는 체형 대 체고비 및 체고가 차이가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단일 품종인 진도개의 표준체형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단체에서도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산지인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제정 실행하고 있는 표준체형과 영국 애견협회(Kennel Club, KC), FCI에 제출한 진도개 표준체형이 다르다면 진도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에 치명적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정부기관에서는 이번 동물보호법 등이 시행되는 2008년을 원점으로 삼아 진도개표준체형을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3. 진도개 표준체형의 변천사

1) 1940년 2월 모리교수의 보고서

○ 1937년 2월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모리(森蔭三)교수가 진도개에 대하여 진도군의 현지조사 자료를 근거로 1940년 학계에 보고한 것이 최초이며, 이러한 자료는 진도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진도개 체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별첨 1 참조)

- ① 얼굴은 정면에서 보면 팔각형을 이루고 주둥이는 약간 길면서 팔각형 아래로 늘어져 있다.
- ② 귀는 생후 3개월 가량이면 뽀쪽하게 서고 삼각형으로 작으며 다소 긴 것도 있으나 모두 앞으로 향하고 청력이 예민하고 힘차고 날쌔게 생겼다.
- ③ 눈은 미간이 가까우며, 형태는 삼각형으로 눈꼬리가 올라간 것이 많으며, 눈동자는 털빛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濃茶色이며, 백구는 눈동자 빛깔이 회색이다.
- ④ 코는 주둥이 끝에 있으며 아래턱은 수평으로 입술이 매우 긴장되어 있다.
- ⑤ 수염은 볼수염과 눈위에 좌우 2개씩 나있으며, 윗수염은 좌우 20여개, 턱수염은 10여개이고 가슴팍에 1~5개이다.
- ⑥ 네다리는 강건하고 앞다리는 균형있게 곧게 서며 아래 굽에서 약간 앞쪽으로 굽히고 있는 것이 많다.
 - 뒷다리는 앞다리 같이 힘차게 딛고 있으며 비절로 뒤쪽을 버틴다.
 - 발가락은 가지런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으며 적당하게 튀어나와 붙임성 있게 서 있다.
- ⑦ 등은 바르고 허리는 강하며 배는 긴장해 있다. 꼬리는 힘있고 감은 것이 많으며 左券, 右券 過券 등이 있다. 꼬리는 생후 3개월부터 감는다.
- ⑧ 털빛은 赤茶色으로 광택이 나고 그 외 여우색, 검정색, 흰색, 흰색바탕에 검거나 붉은 반점이 있는 것 등 종류가 많다.
 - 주둥이 주위는 검정빛이 많다. 개중에는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을 두른 호랑이 무늬를 닮은 것이 있어 이를 호랑이개라 칭하기도 한다.
 - 털가죽은 까칠까칠하고 거친것과 부드러운 솜털의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⑨ 수컷은 체고가 43~59cm, 암컷은 40~53cm이며, 체고대 체장의 비는 100 : 110~120이다.

- 이상과 같은 모리(森蔭三)교수의 보고는 진도개 7~8마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모상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체고의 수치와 체고대 체장비는 7~8마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 하지만 모리교수의 보고는 진도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진도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진도개 보호대책위원회(이후 진도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진도개의 표준체형을 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2) 진도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안 제정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진도개가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되면서 1966년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안이 이남준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고 1967년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이 법률 제 1875호로 제정됨

3) 진도개보호대책위원회 구성과 표준체형 제정

- 1966년 6월 9일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전남도 조례 제 274호에 의거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가 강영선교수, 오순섭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진도개 표준체형을 제정하기에 이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별첨 1참조)

① 암컷의 체고는 39.5~53cm, 수컷의 체고는 42.5cm~59cm, 체고대 체장비는 100 : 110이다.

② 모색은 흑, 백, 다갈색을 인정하되 반점이 있는 것은 실격이다.

③ 귀는 생후 3개월 만에 서되 그 기장과 높이의 비는 1 : 1 이다.

④ 수염은 뺨 양쪽에 2개씩이고, 눈위 양쪽에 2개씩 나야하며, 턱수염은 10개, 가슴수염은 1~5개, 콧수염이 좌우 각각 20여개씩 나 있어야 한다.

- ⑤ 전두장과 구물장은 1 : 1 이다.
- ⑥ 꼬리는 생후 3개월째에 말아야하고, 말지 않은 것도 있으나 강하고 털이 많아야 한다.
- ⑦ 털은 솜털이 있어야하고 적자색의 윤기있는 것이 고상하며 백, 흑, 황, 회색도 있다.

4) 진도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표준체형의 변천사

- 1967년 5월 7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개최된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표준체형을 결정하였으며, 등록과 심사를 현지에 위임하고, 모색을 황색과 백색으로 확정하여 흑색과 호색을 배제하였음
 - 이 때 모색의 배제로 현재 백구와 황구만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1차 회의에서 진도개의 체고는 암컷이 50~55cm, 수컷이 55~60cm로 정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약간의 수정을 거쳤음
- 1969년 7월 8일 개최된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정된 표준체형의 주요 내용은 콧등의 빛은 흑색을 원칙으로 하며 황색견은 검정, 백색견은 회색도 인정하였음
- 체고의 개정은 암컷이 45~50cm, 수컷이 50~55cm 으로 결정되었음
 - 1차 회의에 비해서 5cm 정도가 작아졌다.
- 1977년 4월 13일 개최된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체고가 암컷 43~53cm, 수컷 45~58cm으로 재수정되었음
- 1985년 6월 12일 열린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머리부분을 역삼각형으로 개정을 부결하였으며, 모색의 다양화도 부결시켰음

5)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진도군 이관 및 현재의 표준체형 개정

- 1995년 2월 16일 진도개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진도개심의위원회를 전라남도에서 진도군으로 이관이 결정되었음
- 1998년 5월 7일 진도개심의위원회는 진도개심의위원 1기로 구성되었으며 진도개보호육성법 2차 개정(1997. 8. 22)에 따라 진도군으로 이관되어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도군주관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표준체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된 내용은 각각의 표준체형 구분에서 해설을 추가하였음
- 체고에 대한 개정은 수컷이 48~53cm, 암컷이 45~50cm이며 체고와 체장비는 100 : 110이 바람직하다고 개정하였음
- 1999년 1월 29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3차 개정(법률 제 5721호, 별첨 4참조), 진도개보호육성 조례 개정 1차개정(1999. 6. 14)되었으며, 진도개시험연구소가 설치(1999. 11. 13)되었음
- 2002년 9월 27일 진도개심의위원 3기 회의에서 진도개표준체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현재의 진도개 표준체고는 수컷 48~53cm, 암컷 45~50cm임

4. 진도개 체고 및 체장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의 분석

1940년 모리(森蔭三)교수에 의해 진도개의 특징과 성품이 연구논문으로 최초로 보고된 이래 1971년부터 학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진도개 체형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결과보고서, 또는 순수연구 논문으로 그 결과를 세계학회에 발표되었거나 국내학술지에 투고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대표적인 논문 5편 중 머리와 꼬리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3편만을 기술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별첨 2 참조)

1) 한국 진도견에 관한 연구 (제1보)

- 박종만교수의 1971년 한축지(13 : 92 ~ 106p)에 발표된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제1보)’에서는 진도군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총 919마리 황구와 백구의 체형을 측정하였음
- 측정부위는 체고, 체장, 흉위, 흉심, 이간, 이폭, 이고 및 체중을 측정하고 성별, 모색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 체고는 황구와 백구 수컷이 $46.41 \pm 0.21\text{cm}$ 과 $46.27 \pm 0.27\text{cm}$ 이었으며, 황구와 백구의 암컷은 $44.68 \pm 0.10\text{cm}$ 과 $42.57 \pm 0.17\text{cm}$ 이었음
- 체장에서는 황구와 백구 수컷이 $53.05 \pm 0.21\text{cm}$ 과 $53.97 \pm 0.33\text{cm}$ 이었으며, 황구와 백구의 암컷은 $52.17 \pm 0.11\text{cm}$ 과 $52.57 \pm 0.17\text{cm}$ 이었음
- 체고대 체장비는 황구와 백구의 수컷은 114.32와 116.64이었으며, 암컷은 각각 116.8과 117.27이었음 (표 3).

2) 진도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 - 기초조사

- 1986년 김윤규외 4인이 발표한 본 연구는 진도개보호육성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서의 결과로써, 진도군 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 250마리를 대상으로 23부위를 설정하고 측정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 수컷과 암컷의 체고는 각각 $48.07 \pm 4.13\text{cm}$, $45.30 \pm 3.21\text{cm}$ 였으며, 수컷과 암컷의 체장은 각각 $51.99 \pm 3.66\text{cm}$, $49.28 \pm 3.30\text{cm}$ 이었고, 체고대 체장비는 수컷과 암컷이 각각 108.02 ± 8.2 , 108.6 ± 8.9 이었음

3) 진도개의 체형 - 몸통과 다리

- 박영석 등이 2005년 동물자원과학회지 및 XII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2006에 발표한 ‘진도개의 체형-몸통과 다리’에서 진도군내에서 사육중이며 진도개 심사에 합격한 성견 1,985마리 중에서 무작위로 195마리를 선정하여 18부위를 측정하였음
- 본 논문에서 수컷과 암컷의 체고는 각각 $50.67 \pm 2.46\text{cm}$, 47.48 ± 2.50 이었으며 평균치는 48.21 ± 2.85 였음
- 수컷과 암컷의 체장은 $52.99 \pm 2.44\text{cm}$, $50.33 \pm 2.92\text{cm}$ 으로 평균치는 $50.96 \pm 3.05\text{cm}$ 이었음
- 수컷과 암컷의 체고대 체장비는 각각 $104.7 \pm 5.0\text{cm}$, $106.1 \pm 6.1\text{cm}$ 이었음

4) 체고, 체장 및 체고대 체장비의 결과 비교

- 상기에서 기술한 체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3편의 논문에서 평균 체고의 비교는 1971년 수컷의 체고는 46.41cm , 1986년에는 48.07cm , 2005년 50.76cm , 암컷의 체고도 각각 $44.68(42.57)\text{cm}$, 45.3cm , 47.48cm 으로 암수 모두 체고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측정의 방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육환경과 적절한 사료급여의 결과로 추정됨

- 평균 체장의 비교는 1971년 수컷의 체장 53.05(53.97)cm, 1986년에는 51.99cm, 2005년 52.99cm, 암컷의 체장도 각각 52.17(52.57)cm, 49.28cm, 50.33cm으로 암수 모두 체장이 1c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음

- 체고대 체장비는 114 ~ 117, 108, 104.7(106.1)로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이러한 결과로 추정하건데 30여 년 전까지는 주로 사육형태가 방사 형태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좁은 사육장이나 목줄을 맨 상태로 사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별첨 3참조)

5. 진도개 표준체형과 주요 연구논문 결과의 비교분석

1940년 모리(森蔭三)교수에 의해 진도개의 특징과 성품이 보고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제정, 진도개보호대책위원회, 진도개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면서 진도개의 혈통보존을 위해서 표준체형을 제정 및 개정 내용과 학계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별첨 3참조).

- 별첨 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1년 체형에 관한 논문이 보고되기 전까지의 진도개표준체형에 제시된 체고는 수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인 계측이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지정함으로써 변화가 심했던 것으로 추측됨
- 이상과 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부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면밀히 측정하여야 하며, 5년 또는 10년 주기를 갖고 체형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 이러한 관찰에는 진도군에서 육지로 분양되어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들의 체형 변화도 포함하여 부위별 계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진도개 표준체형 통일화를 위한 제언

- 현재 진도개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노력으로 진도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KC, FCI에 등록됨으로써 세계적인 애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즉, 한국애견연맹(KKF)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진도개가 2005년 FCI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진도군과 삼성 에버랜드의 공동노력으로 KC에 혈통이 등록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음
- 하지만, 세계적인 두 단체에 등록된 진도개는 분명히 단일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표준체형 특히, 체고와 체장비에서 차이가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단일 품종인 진도개의 표준체형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단체에서도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산지인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제정 실행하고 있는 표준체형과 KC, 그리고 FCI에 제출한 진도개 표준체형이 다르다면 진도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매우 치명적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 ① 현재 세계적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진도개 표준체형은 통일시킨다.
- ② 표준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므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거하며, 우선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도군에서 진도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체형을 통일안으로 한다.
- ③ 각 단체가 주장하는 체고 및 체장비의 최적화를 위해서 빠른 기간 내에 진도군내

진도개와 진도군에서 분양되어 육지에서 사육중인 진도개를 광범위하게 무작위로 선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측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표준체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④ 진도개의 우수능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도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끝으로 1967년도 이전에는 황, 백, 호반, 재색, 흑색 등의 진도개가 사육되었으나 진도개보호육성법의 심사표준에 황색과 백색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외의 색깔을 지닌 개는 진도개의 품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소외되고 있는 흑색과 재색, 호반 등의 보호도 절실히 요구된다.

제4장

진도개의 품성과 진도개 육성 방안

1. 진도개 표준품성과 해설 ____30
2.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진도개 ____32
3. 향후 진도개의 진로 ____34

제 4 장 진도개의 품성과 진도개 육성 방안

1. 진도개 표준 품성과 해설

진도개의 표준체형에 다음과 같은 품성(표 참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진도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귀소본능, 용맹성, 대담성, 결백성, 수렵본능, 경계성,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품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견이자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견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수한 품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진도개 표준 품성과 해설

	기 준	해 설
품성	충성, 용맹, 경계, 수렵 및 귀소본능, 결백대담,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개는 대담, 용맹하며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며, 상대 동물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 주인에 대하여는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만지거나 손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예민하고 항상 경계하며 특히 다른 수컷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낸다.

진도개는 다른 견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우수한 품성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애호를 받음

품 성	설 명	해 설
주인에 대한 충성심 (忠誠心)	한번 주인이면 평생주인으로 섬기며 배반하지 않는 정직한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서부터 정들여 기르지 않고, 성견을 구입하여 기르면 불임성이 적어 새 주인과 친숙해지는데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음
귀소 본능 (歸巢本能)	집으로 돌아가거나 출발 하였던 장소로 돌아오는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먼곳에 갔다 두어도 객선(客船)에 편승하거나 혹은 헤엄쳐서 영리하게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 했으며, '97년도에 광주 모 방송사에서 실제 실험해본 결과 사실로 판명 되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함
수렵 본능 (狩獵本能)	사냥을 할 수 있는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렵본능이란 개가 직접 노루, 토끼 등 다른 짐승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쫓아 직접 사냥하는 본능적인 품성을 말한다. 이러한 품성은 뛰어난 후각과 지구력, 대담하고 용맹스러운 성격을 겸비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며, 한번 추적한 짐승은 끝내 잡고야 마는 끈질긴 승부근성이 매우 강하다. 또한 집에서 생후 3~4개월의 강아지는 쥐를 잡는 등 천부적인 수렵본능을 발휘하기도 함
비유혹성 (非誘惑性)	주인외에 타인이 아무리 좋게 하거나 기호품을 주어도 받아 먹지 않으며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혹성은 약간의 훈련을 요하는 품성임
결벽성 (潔癖性)	깨끗함을 좋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아지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불결한 곳을 찾아 대소변을 가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 지극히 깔끔한 것이 천성이며, 옛날 시골 밥을 차려 부엌에 그대로 두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의 눈을 피해 음식을 훔쳐 먹는 일이 없으며, 주인이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만 먹음.
경계성 (警戒性)	타인의 침입이나 사고가 생길 경우에 주인에게 알리는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낮모르는 타인과 주인을 철저히 식별하여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철저하고도 예리한 경계심은 도둑을 지키는 번견(番犬)으로써 손색이 없으며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 수 천평의 농장이나 공장도 한 마리로써 능히 지킬수 있음 ■ 주인에게는 항상 순종하나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경계심을 풀지 않으며, 영리한 개일수록 주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찰하여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품성을 지님
용맹성과 대담성	상대 동물에 대하여 용감하고 대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다지 크지도 않은 체구에서 용기와 기백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굽힐줄 모르는 용맹성과 대담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진도개의 우수한 특성은 자연과의 접촉에서 획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며 육지의 개와는 달리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진도에 있던 개는 비교적 순수한 혈통과 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진도개는 주위를 철저히 경계하기 때문에 번견(番犬)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진도개는 싸움을 잘하는 개도 아니고 포악스럽고 우직하게 생기지 않은 개이며 보기에 부드럽고 내면적인 면이 있고 평소 온순 침착하며 자주 보아도 질리지 않고 꾸밈이 없는 순박한 외모로 고향 농촌맛을 느끼게 하는 친근감을 주는 개로 많은 우수한 특성을 갖춘 우리 고유의 토종개이다. 위와 같이 진도개의 여러가지 우수한 품성 때문에 한번 길러본 사람은 매료 되어 진도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진도개

진도개는 개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인 영민성을 가진데다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며 뛰어난 귀가성을 간직하고 있다. 진도개는 첫정을 준 주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 따라서 강아지때부터 기르지 않고 성견을 구입했을 경우 탈주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 대전에서 진도로 돌아온 백구와 같은 예가 흔한데 자유당 말기 진도에서 군용견으로 전선에 팔려간 개가 한 달 만에 옛 주인집으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으며, 해남에 팔았던 개가 목줄을 물어 끊고 옛집을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다. 진도 현지의 사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일화들이 상당히 많다.

진도개는 대담하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하다. 산속에서 멧돼지 같은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덤벼든다. 야생 동물을 물었을 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 개들끼리 싸울때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대형 견종과 맞붙어도 한치도 물러섬이 없다. 일단 싸움이 붙으면 특유의 날랜 몸놀림과 악바리 근성을 발휘하여 상대 개는 대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 임진왜란 때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호랑이를 잡아 일본으로 가져가기 전에 호랑이 밥으로 진도개 세 마리를 넣어 주었더니 다음 날 호랑이는 죽어 있고

상처투성이의 진도개들은 살아 있었더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이다.

진도개 고유의 능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렵성이다. 외국 사냥개와 달리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수렵견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한다. 5개월 정도만 되어도 야생 동물의 냄새를 정확히 맡으며 1년이 지나면 산짐승을 추격하고 잡으려 한다. 진도에서는 총이나 몰이꾼 없이도 개만 가지고 노루, 산토끼, 꿩, 오소리, 너구리 등을 잡는 일이 흔히 있다. 진도개의 이런 타고난 수렵성은 예전부터 진도의 자연 환경이 좋아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았고, 개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풀어 놓은 채 길렀던 까닭에 개 스스로 부족한 끼니를 사냥을 통해 보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축견연맹에 등록된 진도개의 용도는 ‘사냥견’으로 되어 있다. 당시 국제공인을 요청했던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는 진도개의 여러 특성 중 수렵성이 견종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파악한 것이다. 진도개의 수렵성은 오랜 세월 동안 진도개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고 견종의 특성을 형성시킨 아주 중요한 인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도개는 사냥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집지키는 용도로도 소질이 있고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반려견이나 잘 생긴 용모로 관상견이 될 수도 있는 등 ‘다목적 종합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도개의 수렵성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들 중엔 진도개의 평가 기준을 사냥성에 두고, 다른 부분이 우수해도 사냥성이 떨어지는 개는 ‘진도개의 본질에서 벗어난 개’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야생동물보호정책이 중시되는 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도개의 수렵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우리나라에 있는 진도개 중 수렵용으로 키우는 개가 과연 몇 마리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3. 향후 진도개의 진로

- 진도개는 품성면이나 견종 고유의 능력면에서 여러가지 독특한 면들을 지닌 진도개는 향후 진로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
 - 최근 국내에 애완견 열풍이 불면서 외국종 애완견의 수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진도개는 수요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진도개 상품화 방안이 논의되고, 보호육성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함
 - 반면 대중화와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 취향에 맞게 진도개를 변화시키는 일 역시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진도개의 특성상 사회성(社會性)이 결여되고,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기르기에는 체격이 커서 이 역시 쉽지 않음
- 더불어 진도개는 늑대가 아닌 가축으로서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진도개를 명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진도개는 여러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겪으며 형성되어온 토종개로서의 진도개의 고유한 성품은 사냥성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풍토에 적응되어 온 우리 정서와 기호에 알맞은 토종의 개념으로서의 진도개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때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주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무모함도 갖춰야 될 것이며, 인간들의 친구도 되어 주는 부드럽고 소박한 면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현재 진도개의 체형 및 품성에 관한 여러 진도개 애호가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이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나 선입견일 뿐 실제 혼혈에 의한 유전적 변화의 증거는 없으며 앞으로의 개량방향은 현상 보호유지와 새로운 계통(진도개의 수렵견 계통과 번견 계통)육성의 이원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냥견으로서 새 사냥에 주로 쓰던 리트리버는 뛰어난 두뇌와 후각, 침착함과 사람에 대한 친밀한 성격 등을 살려 요즘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마약탐지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셰퍼드는 원 조상견이 양치기개로서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다 군용견 등 다양한 만능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리트리버나 셰퍼드가 타고난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적용된다면 개가 퇴보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도개의 용도를 전문화해 수렵견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개, 번견으로 육성한 개, 가정에서 사람들의 친구 역할을 해줄 반려견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육종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볼직하다.

제5장

우수 진도개 혈통고정 방안

1. 진도개 혈통고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미흡 ____37
2. 진도개 개량번식(육종) 방향에 대한 연구 부재 ____38
3. 진도개의 육종방향과 혈통고정 ____38

제 5 장 우수 진도개 혈통고정 방안

1. 진도개 혈통고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미흡

진도개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심사를 하기 위한 표준체형을 정해 놓았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진도개의 심사방법은 진도개 보호 육성법에 따라 생후 6개월이 되면 키, 머리와 털의 빗갈 등 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표준체형을 정해 심사하고 있다. 이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마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일정하지 못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털색은 황색과 백색으로 구분하고 기타색은 일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외모 판단으로 진도개에 대한 심사, 혈통증명, 견적관리 등의 유통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며 견적증명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도개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진도개의 외모를 비롯하여 혈액학적 특성, 혈액단백질 비교분석, 핵형분석, mtDNA 多型분석 및 유전적 특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진도개의 생리적 특성이나 진도개의 혈연관계 및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진도개의 혈통고정을 위한 진도개 육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으며 우수한 진도개의 혈통고정을 위한 체계적 육종 즉 선발과 도태가 실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우수 진도개의 혈통고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개 동호인 협회가 국내는 물론 미국 L.A., 일본, 유럽 등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진도개의 혈통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여 전문가들이나 사육자들 간의 혼선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소비자(사육 초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외모중심인 심사를 통해 우수 진도개를 판정하기에 진도개에 대한 많은 이견이 생긴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일부 애견상인이나 협회들의 혈통조작과

가짜혈통서 남발이 그 첫째 원인인 것이다. 경제적 이득에만 눈이 어두워 진도개를 닮은 유래 모르는 개에 진도개 혈통서를 발행하던 애견 단체들의 난립이 원인이 되어 혈통의 난마가 얽혀 버린 지금의 상황은 몇 사람의 작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이제 풀 수도 없게 되었다. 진도개 한 품종조차 제대로 지니지 못한 국민들이란 소리를 후대에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 진도개의 육종(개량 번식 방향)에 관한 연구 부재

이와 같이 진도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어떤 개가 진짜 진도개 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는 일본개처럼 균형 잡힌 외모의 개만을 선호했던 적도 있었고, 얼마 전부터는 외모보다 수렵성, 야성만이 진도개를 상징하는 것인 양 주장하기도 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해도 진도개다운 특성을 잃은 개를 진도개라 할 수 없으며,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외모의 중요성이 반감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그 양자를 조화해 내는 개를 육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어떤 진도개는 계획적인 번식과 사육자의 올바른 관리로 외모에 있어서는 일본개 못지않게 보기 좋은 개들이 많으나 진도개 고유의 품성은 점차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시에서 수렵성을 키운다고 정기적으로 산야를 누비게 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야생 동물 보호가 절실한 현실에서 불법 수렵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진도개의 육종 방향과 혈통고정

개의 경우는 독일 사람들에 의해 뛰어난 품종들이 창출되었는데 셰퍼드, 도베르만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으로 스테파니츠가 만든 셰퍼드를 들기도 하는데 셰퍼드의 품성, 일 수행 능력, 우아한 모습 등으로 인해 독일인의 자부심을 크게 높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뒤 경제 부흥기에 막대한 외화 수입원이 되

기도 했다. 동양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우수한 품종의 개를 많이 만들어 내었는데 일본의 경우 1930년대부터 지역에 따라 고유한 개들에 대한 보존 노력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10여종에 이르는 일본개들이 개량되었으며 서구의 어떤 나라들과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애견 선진국이 되었다. 아키다, 칭, 도사, 스피츠 등이 일본의 자랑스런 개들인데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으며 길러지고 있다.

1) 필요성

○ 진도개의 우수한 혈통고정 및 육종을 위한 최적의 기초집단 구성

- 진도개의 우수한 혈통을 고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초집단을 구성하여 진도개의 유전적 특성과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진도개의 근친교배에 의한 근친퇴화 방지

- 진도개의 경우 단일품종이기에 교배시에 근연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근친교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혈연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 및 우량집단 유지를 위한 교배지침 수립

- 진도개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번식기법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배에 대한 개체별 번식기록을 정리하여 가계도를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 방안 (그림 9 참조)

단계	추진방안	주요 내용
1단계	기초집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집단에 참여할 대상축에 대한 외모심사 기준 마련 ○ 기초견에 대한 체형 및 발육능력 조사 ○ 개체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체정보 전산화
2단계	능력평가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 조사 ○ 유전능력 평가에 의한 선발지침 수립 ○ 선발 및 도태에 의한 기초집단 정비
3단계	핵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집단유지를 위한 지속적 축군 관리 ○ 육종목표에 의한 우량집단의 조기선발 실시 ○ 인공수정 등을 통한 우수 진도개의 능력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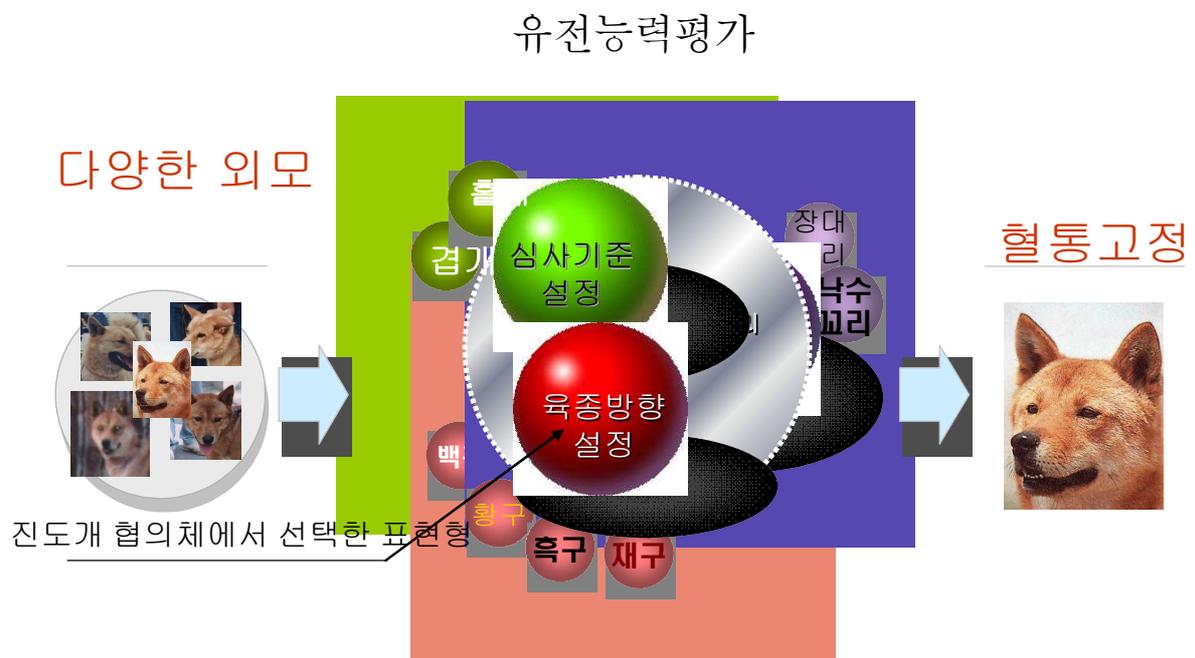


그림 9. 진도개 혈통고정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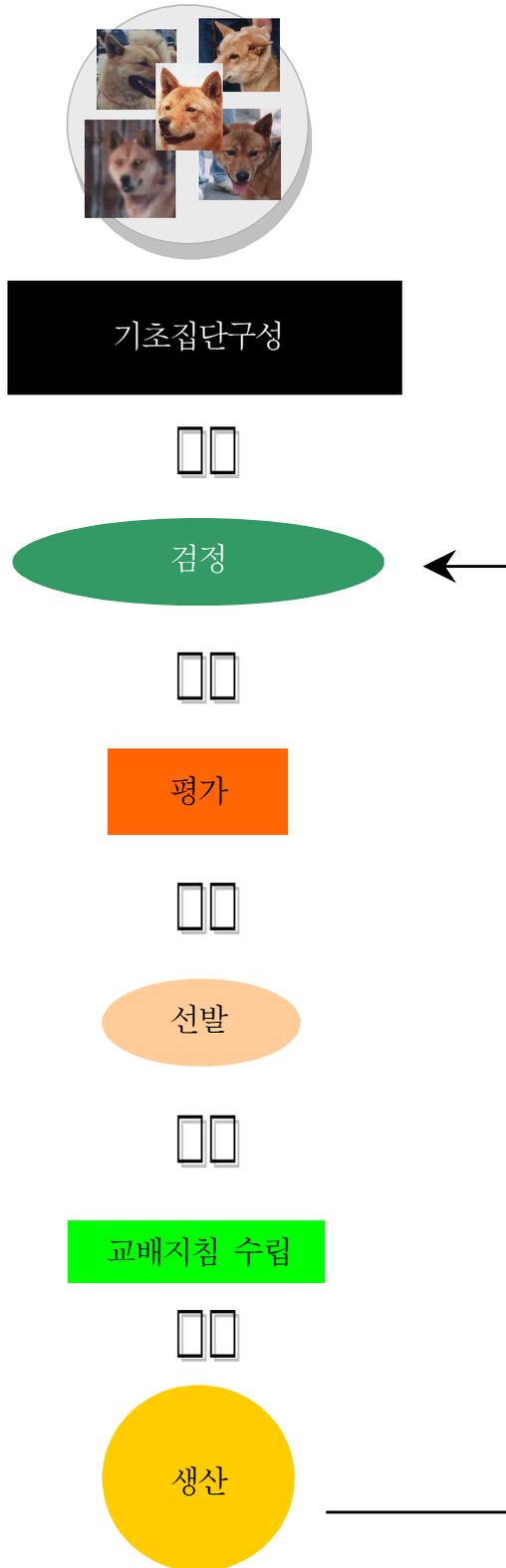


그림 10. 진도개 혈통고정 모식도

3) 주요 추진방법 (그림 10과 그림11 참조)

○ 진도개의 혈통고정 및 외형 정립을 위한 협의체 설립

- 진도개의 육종 방향 및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객관적인 외모심사 기준 설정

○ 진도개의 개체관리 시스템 구축

- 개체식별장치 부착을 통한 개체관리ID 체계구축
- 개체별 주요 형질에 대한 측정 및 DB화 추진
- 유전능력 평가와 연계 가능한 혈통등록 시스템 구축
 - 혈통정보에 의한 등록단계(기초, 혈통, 고등등록) 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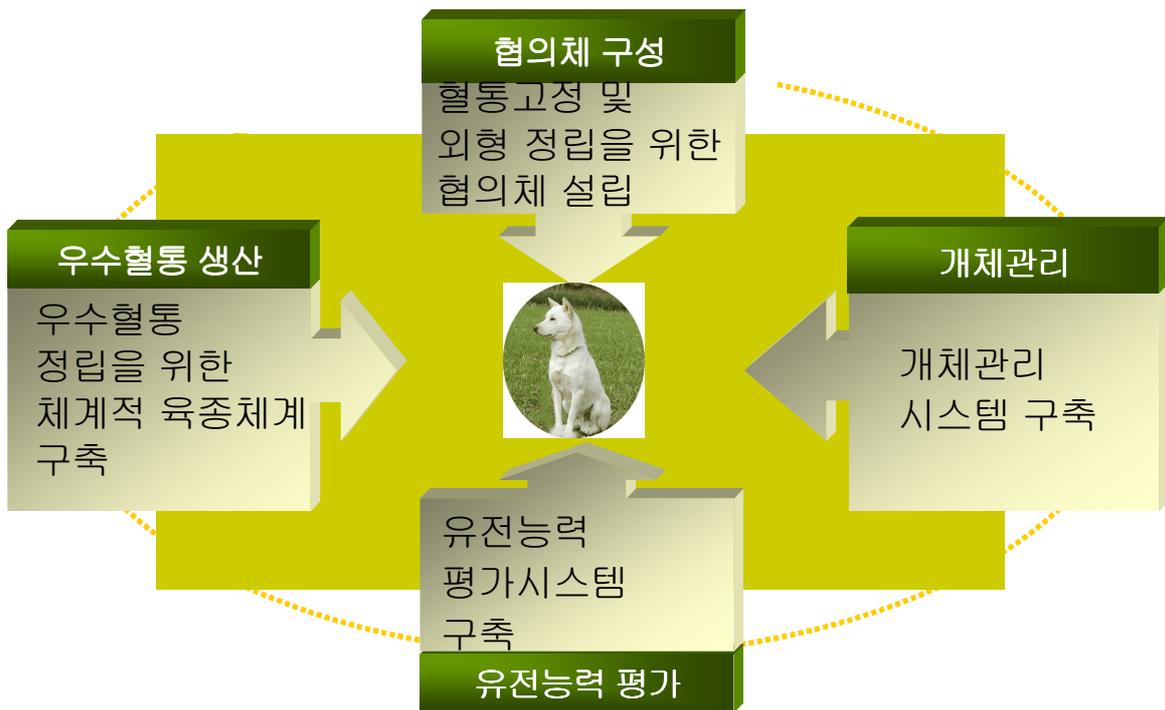


그림 11. 진도개 혈통고정 추진방법

○ 진도개의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형질에 대한 유전능력 평가 실시
 - 체형 및 발육능력에 대한 유전력 추정
 - 주요 형질들 간 간접선발을 지침 마련을 위한 형질간 유전 상관계수 추정
- 우량 집단 유지를 위한 선발 및 교배 지침 수립
 - 유전능력평가에 의한 육종가 산출
 - 육종가에 의한 과학적 종모건 선발
 - 근친예방을 위하여 혈연계수를 고려한 교배계획 수립
- 표현형 및 유전적 특성 고정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 개체관리시스템에 의한 생성된 개체정보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 시스템 운영
- 우량핵군 조성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당대 및 후대검정 평가시스템 도입
 - 당대검정을 위한 우량 후보 종모건 확보 및 검정 실시
 - 후대검정축 생산을 위한 후보종빈건 집단 확보

○ 진도개의 우수혈통 정립을 위한 체계적 육종체계 구축

- 우량집단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능력지수화
 - 진도개의 우량 형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발지수식 개발
- 육종이론에 근거한 선발용 평가모형 개발
 - 고정효과(성별, 산자수, 모색, 연령, 계절 등)와 임의효과(개체의 유전적 소질) 고려

4) 실행방안

(1) 진도개 혈통 기초건 확보

- 우선 진도개의 객관적 기준마련을 위한 진도개 전문가협의체(가칭)를 구성함
- 혈통 기초건 확보 예산 및 사육공간을 고려한 적정두수 확보계획 수립
- 우수 기초건 확보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 마련
 -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전문 위원 교육 실시
- 외모 및 혈통고정 지침 결정
 - 예를 들면 큰(작은) 진도개, 주둥이가 긴(짧은) 진도개, 체장이 긴(짧은) 진도개, 꼬리가 펴진(말린) 진도개 등
 - 또는 홑개, 겹개, 중간개 또는 후두형 각골형 통골형 등
 - 이밖에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진도개 별로
- 최적 기초집단 규모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가상시험)을 실시함

(2) 진도개 기초건 선정방안

- 당대검정
 - 일정 초기 연령에 도달한 기초건 구입
 - 일정기간 동일한 사육환경에서 사육 후 외모심사 실시
 - 발육 및 외모심사 결과에 의한 선발 기초건의 교배계획 수립
- 후대검정
 -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된 자손의 능력평가 실시
 - 자손에 대한 성장능력 및 외모심사 실시
 - 자손의 능력과 부모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한 유전능력 평가

(3) 우량 혈통견 선발 및 유지

- 기초견의 유전능력에 의한 선발로 기초집단 조성
- 주기적으로 당대 및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우량집단의 지속적 선발 및 유지
- 주기적 평가에 의한 우량 집단 내 혈통견의 교체
- 전문가에 의한 우량 종모견 선발

(4) 진도개 명견 선발체계 구축

- 개체의 유전능력에 근거한 선발지수식 개발
 - 진도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지수식 개발
- 부견 및 모견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계통 조성
 - 품성 또는 발육에 따른 이원화된 계통 조성
 - 번식능력이 우수한 모견계통 조성
 - 질병저항성이 우수한 모견계통 조성
 - 기타 형질고정이 필요한 계통 조성

(5) 진도개 축산사업소 종견장을 이용한 혈통고정

- 진도개 축산사업소 종견장을 확장하여 대량 집단사육을 통해 위와 같은 유전적인 분자육종 추진과 효과적인 사육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함
- 또한 혈통이 우수한 종모견, 종빈견을 다두 선택 사육을 통하여 사육 방법 개선, 사양 관리 개선 등 유전육종의 연구등을 통하여 혈통우수 종견들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농가에게 좋은 종자를 분양
- 황구나 백구만의 사육으로 퇴화가 계속됨에 따라 다른 모색의 개 (흑색, 회색, 호반)들도 사육하여 혈통을 고정시킴

진도개는 인간과 다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3-4대까지의 번식이 가능하고, 또 복당 여러 마리의 새기를 낳으므로, 진도개 전문가 협의체(가칭)에서 정한 계통별 혈통고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애견가들이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지도 않고 한 가지 진도개 형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잡한 생장 환경을 갖고 있는 진도개를 두고 오늘날 유전적 다양성의 한계를 축소하여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외형을 단일화 시킨다는 것은 우수 진도개의 발굴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 구성의 틀의 보호를 위해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진도개의 혈통고정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관상견, 수렵견, 번견, 특수견 등 그 용도를 나누어 혈통 체계를 세워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관상견은 말 그대로 외모의 최고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수렵견은 개의 수렵 능력으로, 번견은 가정에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개로 각기 차별화하는 것이다. 또한 진도개는 아직 군용견, 경찰견, 맹도견, 마약 탐지견 등과 같이 특수 전문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면에서의 활용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개를 소형화하여 아파트에서도 기를 수 있도록 육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진도개들의 수요가 증가하여 진도개 사육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것이다.

끝으로 진도개는 방치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개량 번식 및 혈통고정 연구를 통하여 본래의 진도개 상이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진도개로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6장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

1.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____48
2.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구성 ____49
- 3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기대효과____56

제 6 장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

1.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 고유견인 진도개는 천연기념물 53호로서 다른 견종에 비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주위의 경계심이 탁월하며 귀소본능이 강한 매우 영리한 국견이다. 최근 들어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진도개의 뛰어난 성품과 우수한 기질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2005년 7월 세계축견연맹(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FCI) 334호로 등록되었으며, 동년 영국 애견협회(Kennel Club, KC)에도 등록되었다.

세계적인 명견들은 국제공인애견기구인 FCI나 KC 또는 AKC(american kennel club) 등에서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공인 등록된다. 이러한 단체에 등록된 세계적인 명견들의 혈통관리는 관련 국가의 단일기구(1국가 1단체 인정)에서 일원화된 등록으로 혈통을 관리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 혈통서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순수 혈통을 관리·보존하고 있다.

○ 우리나라 진도개는 1938년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되어 보호 육성되어 오다가 2005년 세계적인 명견반열에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의 진도개 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KKC, KCC 단체 이외에도 혈통서 발행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혈통서 남발에 따른 공신력 저하 및 세대를 거듭 할수록 혈통기록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진도개 혈통의 순수 보존과 혈통개량 및 개체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적인 명견의 반열에 오른 진도개의 순수 혈통을 보호·육성하고 산업화를 위해서는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즉 각각의 개가 누구와 짝을 짓는지를 관리·기록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개체관리를

하면 비로소 제대로 된 혈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개의 조상이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갖췄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혈통의 진도개를 관리할 수 있게 됨

-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의 구축은 국내외 수요와 공급곡선의 추이에 따라 일원적인 번식제어로 진도개의 상품성을 높임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생물산업의 21세기형 산업동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2.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구성

-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은 우수 진도개의 유전자 정보 Database의 구축 및 혈통감별·보존·육종 등과 관련된 진도개 혈통보존 정보화시스템, 진도개의 번식과 사양관리를 과학적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체계화시키고, 각 개체를 등록·보호 관리함으로써 진도개의 우수 적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도개 보호육성 관리시스템, 진도개 심사관리와 전자혈통서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온라인혈통서 발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함 (그림 12과 그림 13 참조)

- 진도개 혈통일원화시스템의 완성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들은 Database 화하여 통합 축적되고, 각 진도개 개체에는 가장 기본적인 혈통·관리·심사 등의 정보는 양방향 RFID 칩에 기록되어 개체인식등록관리에 일원화를 구축하여야 함
- 각 개체별 최소 정보는 무선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관리됨으로써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제거하고 실시간 최적화된 관리시스템이 구축 되어야함

- 이러한 시스템은 IT를 기반으로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에 따른 온라인 구조로써 실시간으로 조회 및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짐



그림 12.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 구성도

1) 진도개 혈통보존정보화시스템

본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유전자 정보 추출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을 대상으로 모발 또는 혈액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분리하고 증폭시켜 유전자정보를 추출하며 유전자 추출은 Database화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2) 유전자 분석

추출된 유전자는 DNA Typing을 통해 분석되고, 유전자별 발현인자를 찾아냄으로써 우수 혈통의 유전자를 선별해야 함

(3) 유전자 정보등록

유전자의 방대한 정보는 분류되고 자료화하여 등록저장 되어야 함

(4) 고유코드생성

유전자형 별 자료화 및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서 유전자형 별 고유코드를 생성시켜 자료화 하여야 함

(5) Database 구축

상기와 같은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atabase를 구축하여야 함

(6) 혈통감별/보존/육종

Database에 등록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혈통을 감별하고, 우수 진도개를 보존하며, 시대에 알맞은 성품 개량 및 특성의 강화를 위해 육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7) 유전질환연구

선천적인 질환인 유전성 질환을 전달하는 유전자를 찾아 내고 미리서 차단함으로써 우수한 진도개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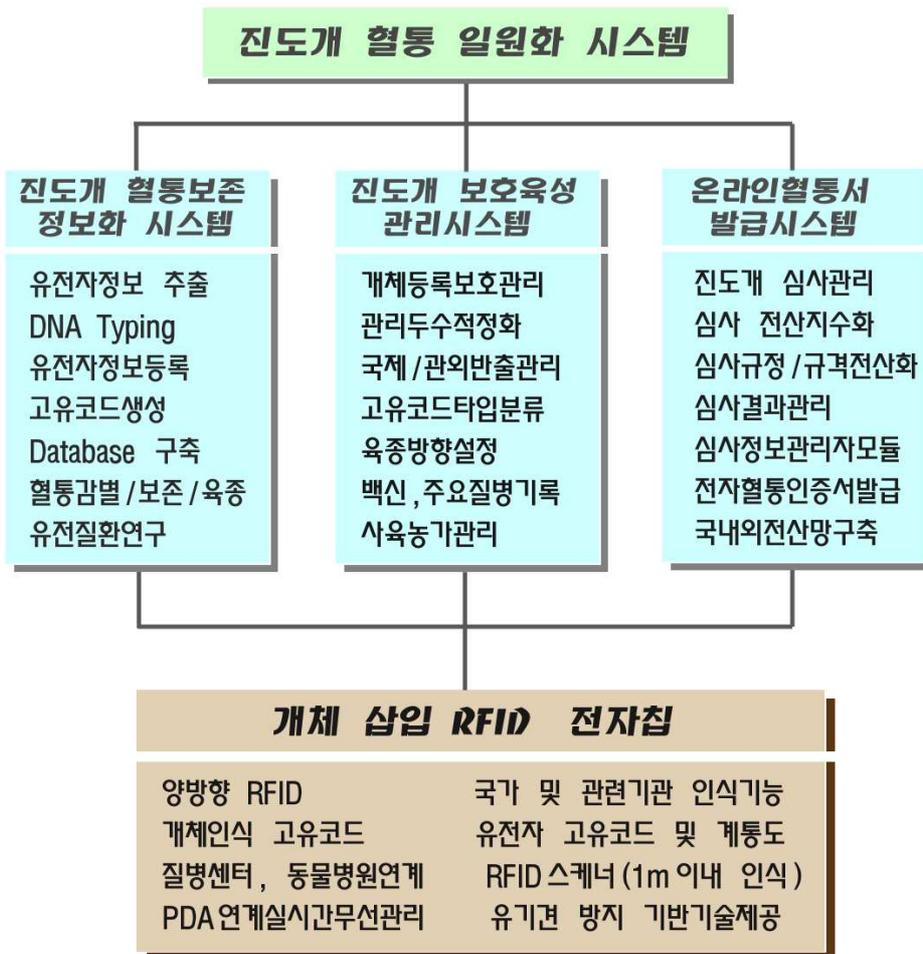


그림 13.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 세부 구성도

2) 진도개 보호육성 관리시스템

본 시스템은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개체관리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1) 개체등록보호관리

심사에 합격한 진도개에 대한 개체를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2) 관리두수 적정화

시장 경제논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진도개의 가

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간적인 검색 및 공급과 수요 예측곡선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곡선의 해석에 따라 진도개의 번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국제/관외 반출관리

진도개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국내 및 국외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반출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혈통인증서 발행과 동시에 실시간적 추적을 위한 반출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4) 고유코드타입분류

혈통보존 정보화시스템에 의한 개체 진도개의 DNA Type 및 계통별 고유 코드타입으로 분류하여 검색과 추적의 용이성을 제공하여야 함

(5) 육종방향설정

계대번식에서 근친번식 및 불량견 유전인자 유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며, 진도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좋은 품성 개발 등의 육종방향의 지표가 되어야 함

(6) 백신, 주요 질병기록

한 개체의 출생에서 사망시 까지 모든 주요 질병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저장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백신 접종유무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유도하여야 함

(7) 사육농가관리

진도개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등의 사양관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진도개의 사육환경에 따른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연구하며, 사육농가에서 이루어지는 번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3) 온라인혈통서 발급시스템

본 시스템은 진도개 심사 및 전자혈통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1) 진도개 심사관리

진도개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심사 전산지수화

진도개 심사는 전문심사원이 실시하는데, 심사원에 따라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항을 지수화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심사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 전산지수화는 전자동 얼굴인식 및 몸체인식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심사원들 사이에서 차이를 최소화 하여야 함

(3) 심사규정/규격전산화

네트워크상에서 심사규정과 규격전산 지수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개체별 심사 전산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며, 객관화를 유도하여야 함

(4) 심사결과관리

각 개체별 심사결과는 체계적이고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되게 해야 함

(5) 심사정보관리자 모듈

심사정보관리자가 심사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기록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듈이 개발되어야 함

(6) 전자혈통인증서 발급

국가 지정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주 컴퓨터를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객관성이 유지된 심사규격 전산화 및 지역 심사원의 결과에 따라 높은 단계의 보안설정 인

증절차를 거쳐 전자혈통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함

(7) 국내외 전산망 구축

일정한 보안단계를 거쳐 외부통합관리시스템 접속할 수 있는 국내외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진도개에 대한 Database를 공유하고 전자혈통인증서를 발급하며, 원격으로 진도개의 혈통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4) 개체 삽입 RFID 전자칩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심사에 합격한 진도개는 개체 삽입 RFID 전자칩을 체내에 삽입함으로써 혈통관리를 체계적이고 실시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체 삽입 RFID 전자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양방향 RFID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은 국제표준 등록번호인 15 Digit 번호체계로써 읽기 전용인데, 향후 사용되어야 하는 전자칩은 양방향 인식 RFID 전자칩으로써 인증을 받아 쓰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며, 일정량의 저장용량도 갖추어야 함

(2) 개체인식 고유코드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코드를 발생시켜야 함

(3) 질병센터, 동물병원 연계

개체의 질병방지 백신접종여부, 주요한 질병상태 및 처치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질병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인증절차를 거쳐 기존의 백신접종여부의 확인과 기존 질병상태 기록 등을 열람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PDA 연계 실시간 무선관리

진도개 혈통 일원화 시스템에서 인증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체 RFID 전자칩에 기록

된 기본적인 자료를 PDA등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관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국가 및 관련기관 인식기능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시행 하는 바,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인 개체 RFID 전자칩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여야 함

(6) 유전자 고유코드 및 계통도

개체 삽입 RFID 전자칩 내에는 유전자 고유코드 및 계통도를 삽입함으로써 개체의 유전형질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입력되어야 함

(7) RFID 스캐너(1m 이내 인식)

RFID 스캐너는 적어도 1m 이내에서 인식되어야 함

(8) 유기견 방지 기반기술제공

최근 들어 유기견의 증가는 공중보건학 측면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애완견에는 RFID 전자칩의 의무화 및 향후 IT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추적장치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함

3.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의 기대효과

진도개 혈통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진도개 혈통관리, 등록의 일원화 및 선진화
- 진도개 사양관리 표준화

- 진도개 전문사육농가 질병, 번식관리, 사육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산업화
- 우수 진도개 선발출, 생산두수 계획 생산 및 외국 수출 상품성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소득의 극대화
- 진도개 심사의 단일화 및 객관화를 위한 지수화
- 국내 및 국제애견협회 등록건 실시간 관리
- 우수 진도개 추적 발굴
- 혈통체계 확립 및 혈통추적 Database화
- 혈통보존 예측
- 형질 전환에 대한 자료 축적
- 타 견종 및 중요 동물자원의 등록관리 기술축적
- ZIGBEE 기반 등록관리 기반기술 개발
- 유기견 방지 모듈 개발
- 유기견 위치 추적서비스 기반 제공

이러한 진도개 혈통관리, 혈통서 발행, 등록의 일원화 및 선진화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예상(모든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되고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기관인 진도군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계통번식 및 견적관리를 하고, 모든 혈통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되었을 때 진도개 단체에 견적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난립한 진도개 협회를 가능한 통합하고, 진도개 품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도개의 혈통관리 일원화 및 선진화를 통하여 진도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면 체계적으로 혈통을 보존할 수 있음은 물론 판매 창구 일원화로 유통 질서 확립할 수 있다. 또한 WTO 출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품목으로 해외 수출의 기반구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7장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진도개 육성 방안

1.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 증대 방안 ____59
2.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부족 ____66
3. 진도개 사육농가의 진도개 보호의식 고취 ____67
4. 혈통고정을 통한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향상 방안 ____70

제 7 장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진도개 육성 방안

진도개는 일제하인 1938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다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진도개에 대한 순종 잡종 시비이다. 이러한 시비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진도개가 오늘의 위기를 맞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도개에 관한 인식의 부족이며, 둘째는 진도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소홀하였고, 셋째는 진도개에 대한 더 많은 산·학·연 협조체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 증대방안

1) 농가의 진도개 사육의욕 저하

- 진도개 사육농가에서 진도견을 사육하는 주목적은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데 있음
- 즉, 사육목적이 별다른 투자 없이 부수입을 얻자는데 있으므로 수입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육의욕이 저하됨
- 원인불명의 폐사건이 많아진데다 자견의 판로확보와 적정가격유지가 어려워져 점차 사육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2) 농가 부업으로서 진도개 기르기

- 진도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진도개 사육농가여야 함

○ 그러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영세한 농가는 물론, 좀 규모가 큰 사육농가도 “돈 벌었다”고 할 만큼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물론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며 안정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마리 수 확대가 힘들

(1) 부업으로서 진도개 기르기의 의의

○ 꼭 “돈 벌었다”는 측면이 아니고 누구나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진도개를 키운다는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하나, 부업으로서 진도개 기르기는 농가 소득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그렇다면 부업으로서의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노동력측면에서 경합관계가 아닌 보합 또는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농촌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노동력이나 일면에서는 이런 노동력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는 농가의 투하노동량을 늘여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런 노동력은 고도의 전문화된 노동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농촌노동력의 질적저하가 현저한 상태에서 투하노동량을 증가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시간당 농업노동에 대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도시근교의 농업노동소득은 모든 농업소득을 노임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판매노동 일당 평균임금에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환경적으로도 유리한데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는 환경오염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찌꺼기를 사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개의 분변과 같은 일부 폐기물이 나타

날 것이나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피해는 훨씬 적을 것이다.

(2)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의 유리점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가의 의사결정기준에 맞지 않아 갈수록 위축될 수도 있으나,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를 할 경우 나타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급사료로서 사육이 가능하므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료용 곡물(에탄올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였고,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2007년 평균 배합사료 가격이 2006년 평균보다 약 13% 상승한 것으로 추정)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배합사료의 자급율을 1980년 41%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07년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량이 692만톤이나 되어 국제수지개선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진도개는 자건의 경우는 1일 사료로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정도면 충분하므로 농가가 부업으로 진도개를 사육할 경우 많은 양의 배합사료나 집약적인 시설이 없이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업으로서의 진도개 기르기를 장려할 경우 외화를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 노동력만으로 진도개의 사육이 가능하므로 전업농의 경우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농가들은 보다 나은 소득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많은 농가가 진도개를 부업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면 진도 군민의 자립기반 향상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진도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업축산은 유력한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부업축산의 발전방안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부업으로서의 축산은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단위시간당 소득창출력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부업으로서의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우수 종모견 (♂)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육을 꺼려하는데 우수 종모견을 가지고 있을 때 종모견 관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부업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수 종모견을 가지고 있을 때 종모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부업축산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수 종모견 수가 늘어날 것이며, 우수 종모견 수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혈통고정의 첫걸음이다. 우수 종모견에 대한 보조는 건강한 종모견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강아지 출산후 6개월간 간격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강아지 생산농가는 불안해할 수 있다. 규모 또한 영세하다. 이러한 영세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도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세한 농가의 보호는 진도개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진도개의 특성상 강아지는 농가의 부업적 생산에 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견이 강아지를 낳은 것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자기 농가에서 우수한 강아지를 생산할 경우 진도개 육성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포상한다는 의미이다. 실행상으로는 개 한 두마리를 키우는 농가에 지급하면 된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밀반출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며, 우수견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혈통고정(제3장 참조)을 위한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실행방법은 부락단위로 황구 또는 백구마을로 지정하고 사육두수를 설정한 다음 사육두수나 외모나 품성이 적정수준에 도달한 부락에 대해서 사육두수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모든 농촌에서 일정한 마리수 이상의 진도개를 사육하게 되어 육종의 기반을 향상시키거나 혈통고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농가에서 부업으로 1-2마리의 적은 수로 사육된 진도개가 낳은 강아지에 대해서는 부업으로 사육된 진도개라는 표시를 하여 가격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진도개의 독특한 특성과 품성을 유지시키는 적은 수의 사육에 의해 생산된 진도개에 대한 가격차별화는 장기적으로 지속적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유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이 낮아 진도개 키우기를 꺼리는 농가에게 현 시점에서 낮은 소득 창출력을 보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과 진도개 사육농가 지도의 방향이 지속적 농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이나 농촌지도의 방향은 다수확, 다생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속적 진도개를 사육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이들이 생산한 강아지에 대해서는 혈통서는 물론 품질인증서를 주는 등 차별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육종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성공한 사육농가의 사례를 발굴하여 농가지도에 연계시켜야 한다.

3)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 추계

진도개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1985년)에서 결정한 수급계획에 의한 진도개 번식견을 1마리 사육할 때의 사육농가의 소득추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는데 진도개 우수 번식견을 1마리 사육하여 강아지(1두 평균 가격 30만원)를 생산하여 팔면 약 이백 오십 팔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진도개 소득 추계

	산출근거
강아지 판매시	◇ 년 2회 출산(1회출산 두수 5두 - 우수견 3두, 불량견 2두출산) $\left[\begin{array}{l} \text{우수견 : } 300,000\text{원} \times 3\text{두} \times 2\text{회} = 1,800\text{천원} \\ \text{불량견 : } 50,000\text{원} \times 3\text{두} \times 2\text{회} = 300\text{천원} \end{array} \right] 2,100\text{천원}$
진도개 사육 농가 수입총액	$12,963\text{두}('96\text{년 번식견수}) \times 70/100(\text{출산률}) = 9,074(\text{출산가능두수})$ $9,074 \times 4\text{두}(\text{산자수}) \times 2\text{회} = 72,592\text{두}(\text{출산두수})$ $72,592 \times 30/100(\text{폐사률}) = 21778\text{두}(\text{폐사두수})$ $72,592\text{두}(\text{출산두수}) - 21778\text{두}(\text{폐사두수}) = 50,814\text{두}(\text{강아지생산가능두수})$ $50,814\text{두}(\text{강아지생산가능두수}) \times 200\text{천원}(1\text{두당 평균가격}) = 10,162,800\text{천원}$
농가호당 소득	$10,162,800\text{천원} \div 6,017\text{호} = 1,689,182\text{천원}$

(1985년 진도개 전라남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계획에 의함)

4) 진도개 사육농가 수익보장문제

표 11 에는 진도개 번식견 표준소득분석표를 제시해 보았다. 여러 가지 변동사항(강아지의 우수성에 따른 가격차이나 질병치료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의 표준소득은 2,000,000원으로 자노력비(부업)를 채하지 않는다면 2,000,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대략 1개월에 166,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소한 낮게 잡아도 (환축이나 불량견 발생) 1마리당 1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10마리를 키우면 월 100만원, 20마리를 키우면 200만원의 수익보장이 된다. 진도개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로 좌우된다. 진도개의 가격경쟁력 역시 품성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수견을 생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보장이 된다는 결론이다

표 11. 진도개 번식견 표준소득분석표

비목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조수입	주산물가액	8마리 (연2회출산: 1회출산두수: 평균 4두)	300,000	2,400,000	번식횟수 : 2회
	계			2,400,000	
중간 재비	종축비	1.0마리	300,000	300,000	배합사료 : 240kg
	농후사료비			0	
	조사료비			0	
	진료위생비			100,000	
	수도광열비			0	
	제재료비			0	
	소농구비			0	
	대농구상각비			0	
	영농시설상각비			0	
	수리(修理)비			0	
	종부료			0	
	임차료			0	
	기타요금			0	
	계			400,000	
	고용노력비			0	
계			400,000		
자가노력비			0	부업	
소득			2,000,000		

2.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부족

아무리 좋은 진도개 보호육성방안이 있다 하여도 그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한다. 진도군이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혈통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며, 밀반출입의 차단과 우량견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 근원이 예산부족 때문이다. 한 해 진도개에 대한 시험연구비와 방역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약 1억2천만원정도이다. 농림부는 가축의 개념에서 방역에 역점을 두고,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진도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1) 진도개에 대한 꾸준한 지원 필요성

진도개가 세계적인 명견으로 공인되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의 대응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고유혈통 보존 연구, 우수견 증식 등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육성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특히 표준체형과 혈통을 고정해서, 국내외 애견가들에게 진도개의 혼선을 바로 잡아 주어 진도개의 위상을 재정립시키는 이미지의 쇄신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되는 우수 강아지에 대하여도 표준혈통에의 유사성을 판별하여 우수견과 불량견의 구분등의 혈통관리를 함은 물론 우수한 혈통을 집중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진도개를 우수견의 양성과 분양 및 진도개 홍보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곧 이루어질 한미 FTA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품목으로 개발하여 해외수출의 기반을 구축하며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2) 진도개의 과학적인 연구 지원

정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기연구과제로 삼아 진도개의 과학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구 성과를 얻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진도개 사육 농가를 위한 바람직한 진도개의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

3. 진도개 사육농가의 진도개 보호의식 고취

일본학자들이 개의 혈액단백질 분석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일본개들은 진도개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다고 한다. 즉 진도개 선조가 진도에서 번성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개들의 시조가 된 셈이다. 진도개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여러 품종의 일본개들은 혈통기록의 신뢰성과 합리적인 품종개량을 밑거름으로 국제화하여 세계적인 개가 되었으며 일본 문화의 강한 힘을 자랑하는 문화 대사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 지방을 대표하는 개에 대하여 이름을 명명하여 부르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북해도견, 기 슈견, 시바견, 아끼다견 등).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진도개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토종개이면서 천연기념물임은 사육자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진도개 사육가를 비롯하여 많은 애호가들이 천연기념물이 갖는 의의에 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개인의 취향과 개인 안목에 따라 사육하고 심사하고 서로들 간에 서로 다른 진도개 이상형이 형성되었고, 자기의 관점만이 옳다는 특유의 옹고집으로 많은 사람 간, 진도개 단체 간에 논쟁과 반목을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보호육성시책효과는 기대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진도개는 군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각 가구당 1~2두씩 사육되고 있다. 따라서 진도개의 보호육성은 사육농가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협조는 귀찮은 의무를 지는 일이므로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진도개는 자랑할만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임을 인식시키고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를 진도군민이 보호육성한다는 긍지를 갖게 계도하는 일이 우선 先行되어야 한다. 즉 진도군민이 모체가 되어 진도개 보호사상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진도개에 관한 통일된 지식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1) 지역사회 및 진도개 사육농가 계도

- 월 혹은 분기별로 진도개 애견가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표 10과 같은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이나 간담회를 실시
- 진도개에 대한 사육농가 의식개혁으로 우수종모견 확보와 불량견은 스스로 없애도록 사육가 홍보 계몽운동 전개
- 진도개 혈통고정 및 우수견 보호를 위하여 도태의 중요성 철저 홍보
- 시청각 자료 활용
 - VTR 상영, UCC 제작 및 배포
 - 우량 진도개의 사진 게시
- 홍보물 제작 및 발송
 - 진도개를 보존하자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사육농가에 배포
 - 진도개의 특성 및 우수품종에 대한 표준을 홍보물로 제작 발송
 - 진도개 사육 및 훈련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일반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진도개 전문가 초청강연 실시

표 10. 진도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월	주 제(예)
1	개와 인간과의 관계
2	진도개 관련 법규 및 육성 시책
3	진도개의 역사와 품성
4	우수견을 길러야 하는 이유
5	외국에서의 자기나라 개의 보호와 육성
6	진고개의 훈련
7	진도개 번식 기술 및 혈통고정
8	진도개의 사양관리 및 성공 사례
9	진도개의 앞으로의 전망
10	진도와 진도개

2) 진도개 관련 협회나 단체 계도

- 여러 진도개보호협회나 애견가보호단체를 합리적으로 운영시켜 진도개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건설한 진도개 보호사상을 지도·계몽

4. 혈통고정을 통한 진도개 사육농가 소득향상 방안

진도개는 누구나 잘 알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내재적 가치가 매우 큰 브랜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예부터 개에 빗댄 비유들은 대부분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쓰이곤 했지만, 유독 진도개에 대한 비유만큼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로 진도개에 대한 호감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6장에서 언급한 진도개의 혈통고정이 이루어지고, 그밖에 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육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진도개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진도개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진도개는 농, 어업을 제외하고는 진도군의 주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혈통우수 종건을 사육하면 농업과 맞먹는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불량건을 사육하였을 시는 사료값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수한 진도개의 집중 보호육성이 요망되고 있다.

끝으로 진도개는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량 번식 및 혈통고정 연구를 통하여 본래의 진도개 상이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진도개를 개량 번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8장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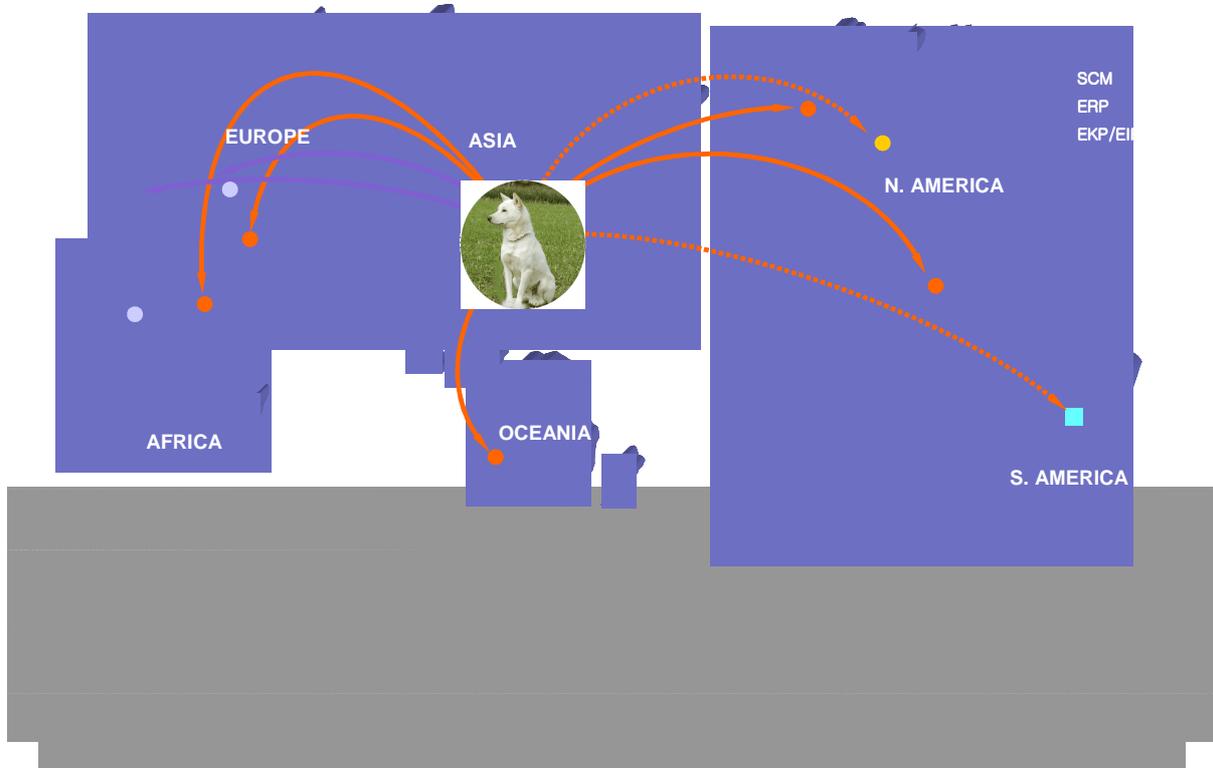
1. 애완산업의 현황 및 전망 ____72
2.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____75
- 3 진도개 홍보 전략 ____76

제 8 장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1. 애완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애완동물 시장 성장 배경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애완동물에 대한 사육 요구 증대는 매우 커지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선진국과의 교류가 증대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로의 애완동물의 중요성은 날로 더하고 있으며, 진도개는 동물 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서의 기대 또한 모두가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애완견과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애완동물 관련 사업의 커다란 성장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애완동물 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에서 시작하여 6,000 달러시대에는 고성장, 10,000 달러 시대에는 성숙시장에 도래되고 20,000 달러에서는 애완동물의 무덤을 만들어 주며 25,000 달러에는 유산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잠재 시장과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로 갈수록 반려동물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는 정신적인 친구로서의 커다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도개를 보호 육성하지 못하면 진도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망한 독일이 16년간 노력한 끝에 셰퍼트를 혈통고정하고 수출함으로써 전후 부흥자금 15%를 충당했던 것을 비교해볼 때 반대로 우리 고유의 자원인 진도개를 외국에서 역수입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2) 외국의 애완견

1972년 뉘른 올림픽 대회에서 닥스훈드견이 마스코트로 등장했고 애완견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칼리브해안의 아름다운 휴양지 안드레섬에서는 주민수와 애완견사육두수가 같다고 하니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세계적 공인견이 약 120종중에서 27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세파드견에 음주나 과속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평생 3종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톱뉴스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톱 뉴스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202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는데 이중에 잡종견이 요키베어군이 등록되었고 미국선거관리의 컴퓨터로 분석한 당선가능 순위가 11위를 마크하여 상위군에 올랐었다는 사실은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그밖에 세계적 공인견을 60여종이나 가지고 있는 영국을 비롯하여 불란서 등 선진국에서는 애완견의 공원묘지로 양지 바른 해변가에 설치하고 항상 추모하고 있다는 것이며 가까운 일본에 어디를 가나 이름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 개의 동상까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3) 국내 애완견 시장 현황

애완동물이라 함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 또는 부의 상징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이러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애견수가 약 200만마리 이상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구당 애견 보유율은 대도시의 경우 15% 이내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비율이며 점차 관심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시장은 약 1,000억 수준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짧은 애완동물 역사와 더불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등이 애완동물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소형견등 위주의 사육환경과 아파트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부담은 애견에 대한 일부의 편협된 시각과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반면 대도시 위주에서 위성도시로의 애완동물 확산은 매우 바람직한 애견문화 발전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애견을 좋아하지 않는 인구는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애견을 사육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40%나 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므로 우리는 애견의 위생적인 사육을 홍보하는 일, 애견사육에 따른 정신 건강 및 성인 건강 증진 홍보, 맹인견,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등 사회기여도를 홍보, 보신문화 감소 및 청소년을 통한 애견문화 확산 등의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애견시장의 발전 방향 및 진도개의 역할

앞서 언급했듯이 다가오는 21세기는 불평등, 계층간의 갈등 심화, 인구의 노령화등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애완동물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갈 것이며 더불어 관련산업의 발전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토종견인 진도개는 반려동물의 지면 확대 및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한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 창달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고유견인 진도개의 저변 확대는 애완동물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이것은 미래의 진도개들에게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개를 집안 식구로 여기는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며 역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도개는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 되며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선수 못지않은 지속적인 국위 선양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진도개는 영국 케넬클럽과 세계애견연맹이 한국의 공식 견종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에서만 상품성을 인정받던 진도개가 수출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 진도개 사육가들은 좋은 체형과 품성의 진도개를 생산해서 세계 애견인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 진도개 수출 활성화 방안

많은 좋은 점을 지닌 진도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견으로 전세계 애견인들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일일 것이나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국내에선 최고의 명견으로 꼽히나 국제 애견계에서는 진도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일본개들의 아류란 인식이 아직도 강하다. 이는 일본 토종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선조격인 진도개로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이야기 할수 있다.

일본개들에 비해 진도개의 국제경쟁력은 현재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애견문화가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발도상에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개에게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기에 앞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세계 애견가들과 애견시장에서 일본개 못지않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1992년 아시아축견연맹(AKU)과, 1995년 국제축견연맹(FCI)에 의해 공인을 받아 늦게나마 고유 견종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도개의 철저한 혈통과 품질관리(제3장 참조)를 통해 다

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고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진도개를 찾는 해외 교민들에게 진도개를 수출한다.

둘째, 목장이나 농장등 야생동물이 출몰해 가축에게 해를 입히는 곳에 진도개만의 고유한 용맹성과 사냥성을 이용하면 진도개의 이 품성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요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도개 관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등 관련 법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혈통고정과 유전 질병진단 의무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넷째, 외국 애견가들은 대부분 '사람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사회성이 풍부한' 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진도개의 이 같은 특성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진도개 홍보전략

각 나라마다 육종해낸 개들은 그 원산국을 대표하는 '애견외교사절'이자 외화수입에도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이제 그나라의 애견산업은 국력의 한 표현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시대가 왔다. 따라서 진도개가 가진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잘 보존시켜 혈통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세계 애견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견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진도개 사육가 및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인 진도개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놔둔다면 진도개는 세계로 진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도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힘을 모아 진도개도 국경을 넘어 세계 명견의 반열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진도개가 유럽 등지의 애견국가로 수출될 경우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제9장

결 론

제 9 장 결 론

우리의 문화유산이면서 우리 고유의 동물자원인 진도개의 보호·육성상 문제점은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에 대한 인식부족, 진도개 보호·육성법의 미비, 진도개 사육농가들의 사육의욕 저하, 진도개 혈통고정과 육종을 위한 지속적 연구 미흡 그리고 보호·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부족 등으로 요약되어 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보호·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진도군민의 진도개 보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거나, 전문 연구인력 부족과 산·학·연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든가,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등의 방안들도 함께 제시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도 첫째, 세계적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진도개 표준체형은 우선 통일시키고 각 단체나 개인이 주장하는 체형에 대해서는 육지에 있는 진도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선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측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표준체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진도개 전문가 협의체(가칭)에서 정한 계통별 진도개 혈통고정이 이루어진다면 (제 5 장 참조) 애견가들이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진도개 형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우수견 선발과 불량견을 도태하며 우수한 진도개를 농가에 보급함과 동시에 혈통체계 확립과 품종기준을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단일혈통서의 발급 등을 통한 혈통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고유의 동물 자원이며 천연기념물 제53호인 한국 진도개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진도개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며, 진도개 해외수출 기반구축은 물론 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대응 소득원으로 개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진도개 전문가 및 사육가들의 상대를 비방하는 풍토를 없애고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지나간 시간을 탓하고 있기 보다는 모든 진도개에 관련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진도개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0장

참 고 문 헌

제 10 장 참 고 문 헌

- 김윤규, 김재홍, 이정길, 이채용, 박거수. 1986. 진도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기초조사. 진도개 육성위원회 보고서, 전라남도 진도군.
- 김자숙, 김선홍, 이태욱, 이정길. 1985. 진도견의 심장사상충 감염률 조사. 대한수의학회지 21:497.
- 金井昊. 1978. 똥개가 다 된 진도개. 뿌리깊은 나무 1월호, pp. 78-83.
- 金井昊. 1979. 珍島犬. 전남일보사, 광주.
- 김종봉, 옥현숙, 윤인숙, 탁연빈, 하지홍, 박희천 1992a. 한국진도개와 삼사리 혈액 단백질의 비교연구. I. 혈청단백질의 구성. 동물학회지 35:96-101.
- 김종봉, 윤인숙, 옥현숙, 탁연빈, 하지홍 1992b. 한국진도개와 삼사리 혈액단백질의 비교연구. II. 혈청 lactate dehydrogenase 와 혈청 alkaline phosphatase 의 동위효소와 활성도. 동물학회지 35:102-106.
- 文在昌, 金相一. 1978.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제24회 전국과학 전람회 문교부 장관상 수상작.
- 박남용 1980. 진도견의 혈액상 및 혈액화학치에 관한 연구. I. 진도견의 혈액상. 대한수의사회지 16:137-141.
- 박성수 1994. 순수 진도개 11% 뿐. 서울신문 9월 2일.
- 박영석, 이재홍. 1992a. 진도견의 정자형성과 Sertoli세포 특수연접부의 미세구조. I. Sertoli세포 특수연접부의 미세구조. 대한수의학회지 32:281.

- 박영석, 이재홍. 1992b. 진도견의 정자형성과 Sertoli세포 특수연접부의 미세구조. II. Sertoli세포 특수연접부의 미세구조. 대한수의학회지 32:295.
- 朴鍾萬. 1971.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제1보). 한국축산학회지 13:92.
- 朴鍾萬. 1972.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제2보). 한국축산학회지 14:189.
- 박종만, 강병규, 이정길. 1971.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71년도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 박종만, 김용식, 전우복. 1970.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70년도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 오석일. 2004. 진도개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元炳旣. 1992. 천연기념물 동물편. 대원사, 서울, pp.93-94.
- 이상로, 이호섭, 정운복, 탁연빈, 박희천, 김종봉, 하지홍. 1991. 삽사리의 가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DNA probe의 선정. 한국유전학회지 13:255.
- 李源達. 1971a. 진도개 순종은 사라져 간다. 중앙일보 6월 17일.
- 李政吉. 1971b. 한국진도견에 있어서 견사상충감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17:373.
- 李政吉, 金敬泰. 1993. 진도개의 毛色. 대한수의학회지 33:763.
- 李政吉, 柳甲鉉. 1988. 珍島犬-우리나라의 固有犬. 대한수의학회지 28:405.
- 이정길, 한방근, 김영주, 김재홍, 최한선, 김자숙, 이채용, 이태욱, 오기석. 1987. 진도견의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진도군 연구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장철호 1988. 순종 진도개 다시 늘고 있다. 동아일보 7월 21일.

조영용, 한홍률, 장두환. 1981. 진도건의 기생충감염 실태조사. 대한수의학회지 21(부록):10.

진도군내중학교. 1988. 사육장 활용을 통한 천연기념물(제53호)보호육성.

하지홍, 2003. 한국의 개. 경북대학교 출판부, 대구.

하지홍, 정운복, 이상로, 탁연빈, 김종봉. 1991. 삼사리의 모색 특징과 혈통에 관한 연구. 한국유전학회지 13:247.

하지홍, 임인학. 1993. 한국의 토종개. 대원사, 서울.

한방근, 김주현, 강주원, 池本卯典 1993. DNA 다형에 있어서 진도견과 잡종견과의 비교. 대한수의학회지 33:43-51

Lee CG, Lee JI, Lee CY, Sun SS. 2000. A review of the Jindo, Korean Native Dog. The Asian-Austral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13(3): 381-389

Kwag SI, Kim JS, Oh SI, Park YS, Lee CG, Kim TJ, Lee JI. 2004. Genetic characteristics of the Jindo using polymorphism analysis of blood enzymes Korean Journal of Companion Animal Science 1(1): 1-21

Bong YH, Kim JS, Oh SI, Park YS, Lee CG, Kim TJ, Lee JI. 2004. Genetic characterization and individual relationship of the Jindo by polymorphism analysis of microsatellites (2004) Korean J. of Companion Animal Science 1(1): 23-37

Park YS, Kim SK, Lee JC, Oh SI, Lee SH, Park BK, Lee JI, Lee CY, Lee CG. 2005. The Conformation of the Jindo(Canis familiaris), Korean native dog- the trunk and limb.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47(5): 891-898.

Kim SK, Lee JC, Oh SI, Kim BS, Lee JI, Lee CY, Lee CG, Park YS. 2006. The Conformation of the Jindo(*Canis familiaris*), Korean native dog- the head.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48(2): 325-330.

제11장

부 록

-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___87
- 별첨 2. 진도개 체형 관련 주요 연구논문___91
- 별첨 3. 진도개 성별 체고 및 체고대 체장비___92
- 별첨 4.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___93

별첨 4.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572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제3조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등)

-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6조 (사육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안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7조 (심사)

- ① 보호지구안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심사결과 처리)

-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게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9.1.29>
- ④ 삭제 <1999.1.29>
- ⑤ 삭제 <1999.1.29>

제9조 (등록)

-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 이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내용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9>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등록증 및 표지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혈통의 보존)

- ① 진도개의 소유자들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 ② 군수는 등록된 진도개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조합·진도개관련단체 또는 보호지구안의 사육자중 전문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군수는 보호지구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관련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반출입의 제한)

-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안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진도개외의 개를 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진도개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에 한한다)와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 ② 누구든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도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로부터 생산된 개중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반출입의 검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지구를 출입하는 선박·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에 대하여 그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13조 (증표의 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1.29>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진도개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내용물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1.29>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4. 삭제 <1999.1.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9>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9>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9>

부칙 <제5347호,1997.8.22>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21호,1999.1.29>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 (2007년 8월 현재) 1/4

구분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 (10인)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0인)	1969. 7. 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1인)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9인)	1979.11. 23 진도개심의위원회 4차회의 (10인)	1985. 6. 12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회의 (11인)	1998.5.7~ 2000.5.6 진도개심의위원 1기 (15인)	2002.9.27~ 2004.9.26 진도개심의위원 3기 (15인)
외모	--	--	--	암수구별 판연, 균형잡힌 중형, 가정에서 온순, 야외에서 용감한 활동능력	좌 동	좌 동	암수 식별 뚜렷, 체형잡힌 중형, 민첩한 외모	좌 동 해설삽입	암수구별 뚜렷, 균형잡힌 중형, 민첩한 외모. 표정 : 온화, 차분, 친근감 소박한 표정
체고	수 43~59cm 암 40~53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120	수 42.5~59cm 암 39.5~53cm 체장 대 체고비 100 : 110	수 55~60cm 암 50~55cm -- --	수 50~55cm 암 45~50cm -- --	수 45~58cm 암 43~53cm -- --	좌 동	좌 동	수 48~53cm 암 45~50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	수 48~53cm 암 45~50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
머리 / 얼굴	정면 : 8각형, 약간 긴 주둥이, 8각형 아래쪽 으로 늘어짐	전두장과 안면장은 1:1	정면 : 8각형 머리와 입술은 힘차게 턱을 감싸고 깊어야 함	좌 동 얼굴표정 : - 친절 예민	좌 동 좌 동	좌 동	정면으로 볼때 거의 8각형, 얼굴 표정은 친절하고 예민하여야함	정면에서 볼때 역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이마는 넓어야 한다는 해설 삽입	정면에서 볼때 이마는 넓고, 귀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귀	생후3개월 직립, 삼각형, 작음, 앞쪽 향함, 칭력이 예민, 힘차고 날쌘	생후 3개월에 직립이 되며 그 기장과 고의 비는 1 : 1	삼각형의 작은 귀가 약간 숙여 있어야 함	삼각형의 작은 귀가 운동이 극 히 활발하고 약 간 전방으로 숙 여져 있어야 함	좌 동	좌 동	좌 동	삼각형태로 머리와 알맞은 조화를 이루고 운동이 극히 활발하고 앞쪽으로 숙여서 있어야 한다는 해설삽입	좌 동 해설추가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 (2007년 8월 현재) 2/4

구분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10인)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0인)	1969. 7.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1인)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9인)	1979.11. 23 진도개심의위원회 4차회의 (10인)	1985. 6. 12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회의 (11인)	1998.5.7~ 2000.5.6 진도개심의위원 1기(15인)	2002.9.27~ 2004.9.26 진도개심의위원 3기(15인)
눈	미간이 가까움, 삼각형으로 올라 간 눈꼬리, 눈동자는 털빛에 의해 다름, 진한다갈색, 회색(흰색털)	—	3각형, 외자가 위로 향함 홍채는 모색에 따라 변화 일반적으로 진한 다갈색, 백색모는 회색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타원형인 눈끝이—, 안색은 일반적으로 농갈색이며 투명하고..의 해설 삽입	좌 동
코	아래턱은 수평, 입술은 긴장됨	—	코는 흑색	흑색을 원칙 (단 백색견은 회색을 인정함)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해설 삽입	좌 동
등	바르고 허리는 강함	—	등은 직선 견갑으로부터 약간 경사	튼튼하고 직선, 견갑으로부터 약간 경사	좌 동	좌 동	튼튼하고 직선 앞부분이 약간 높아야 함	좌 동 해설 삽입	좌 동
배	긴장해 있음	—	긴장되고 앞으로 축 쳐져야 함	긴장되어야 함	좌 동	좌 동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함	좌 동	좌 동 해설추가
가슴	—	—	충분히 발달 깊음, 어깨는 튼튼 경쾌, 깊은 늑골, 흉심은 주두에 도달함	충분히 발달되고 깊어야 함	좌 동	늑골 : 충분히 잘 발달되어야 한다는 문구 삭제	충분히 발달하고 깊어야 함	좌 동 해설 삽입	늑골은 탄력성이 있고 가슴은 잘 발달되고 적당히 깊으며 너무 넓지 않다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 (2007년 8월 현재) 3/4

구분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10인)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0인)	1969. 7.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1인)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9인)	1979.11. 23 진도개심의위원회 4차회의 (10인)	1985. 6. 12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회의 (11인)	1998.5.7~ 2000.5.6 진도개심의위원 1기(15인)	2002.9.27~ 2004.9.26 진도개심의위원 3기(15인)
다리	강건한 4 다리, 앞다리 : 곧고 균형, 약간 앞으 로 굽은 발목, 발가락은 가지 런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음	—	앞다리는 직선, 강하고 주두로 부터 지면까지의 거리가 같음. 상지는 앞다리 허용	앞다리는 적당 한 각도유지, 견고, 직선. 뒷다리는 적당 한 각도로 힘 있게 밟아야 함. 앞다리 상지 허용	좌 동	좌 동	좌 동	정강이는 145 ~150도, 곧은 자세. 근육, 힘살, 인대등이 잘 긴축되어..의 상지부분 삭제	앞다리..좌 동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서 몸체를 전방으로 미는 인상을 주며 힘있게 밟아야 함
꼬리	힘있고 감은 것이 많음, 생후 3달부터 감음	생후 3개월째 말아야 하고 말지 않은 것도 있으나 강하고 털이 많아야 한다	몸에 알맞게 굽고 힘있게 말림 길이는 비단에 달함	좌 동	좌 동	용어 자문 후 결정하기로 함	몸에 알맞고 굽고 힘있게 말아 올리고 길이는 정강이에 달해야 함	몸에 알맞게 굽고 힘있게(선꼬리,말 린꼬리) 올려지고 이는 정강이까지 닿는 것이 바람직함	좌 동
걸음 걸이	—	—	—	자연적이고 뒤에서 볼 때 앞다리와 직선, 옆에서 볼 때 등은 곧음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자연적이고를-자 연스러워야하며로 용어정리)	좌 동 측대보는 안됨을 추가
품성	—	—	—	경계성, 충실성, 비유혹성, 대담 성등 우수한 특징을 지녀야함	좌 동	삭 제 (심사규정삽입)	충성, 용맹, 경계, 수렵 및 가본능, 결백 성, 대담성,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져야 함	좌 동 (특성을 품성으로 용어정리) 해설삽입	좌 동

별첨 1. 진도개 표준체형 년도별 제정 현황 및 비교분석 (2007년 8월 현재) 4/4

구분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10인)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0인)	1969. 7.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1인)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9인)	1979.11. 23 진도개심의위원회 4차회의 (10인)	1985. 6. 12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회의 (11인)	1998.5.7~ 2000.5.6 진도개심의위원 1기(15인)	2002.9.27~ 2004.9.26 진도개심의위원 3기(15인)
털색	적자색, 광택, 여우색, 검정, 흰색, 흰바탕에 검정, 붉은반점, 황갈색바탕에 흑갈색 호랑이 무늬 등 다양함. 검정빛 주둥이 털가죽은 거친 것과 부드러운 솜털의 2종류	털은 솜털이 있어야하고 적자색의 윤기있는 것이 고상하며, 백, 흑, 황, 회색도 있음	외모는 강직 윤택하며 면모는 부드러우며 밀생함. 모색은 황색 또는 백색(흑색, 호색 배제)	좌 동	겉털은 강직 윤택하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털이 밀생함, 꼬리의 털은 좀 길어야 함, 털색은 황색 또는 백색을 원칙으로 함	좌 동	좌 동	좌 동	피모가 이중모이며 겉털은 뽀뽀하고 윤택하며 속털은 부드럽고 조밀함. 털색은 황색과 백색을 원칙으로 함
피부	--	--	--	--	--	--	--	--	적갈색을 원칙으로 하며,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함
수염	볼 좌우 2개 눈위 좌우 2개 윗수염좌우 20개 턱수염 10개 가슴팍 1-5개	좌 동	없어짐	--	--	--	--	--	양쪽에 균형있게 나와 있어야하며 산발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오그라들지 않아야 함
이	--	--	--	--	튼튼하고 치열이 고르고 잘 발달되고 정확히 교합됨	삭 제	--	--	튼튼하고 치열이 고르며 위,아랫니가 잘 교합을 이루어야 하며 결치가 없어야 함을 원칙
실격	--	--	--	이모색, 선천적 단미	좌 동	삭 제	--	--	--

별첨 2. 진도개 체형 관련 주요 연구논문

발표년도 / 저자	논문 제목 / 발표학술지	주요 내용	비고
1940 森蔭三	진도견(조선고유견), 일본견 9:38~44	진도개 체장, 체고, 체장 대 체고비	7~8마리 대상
1971 박종만	한국진도견에 관한 연구(제1보) 한축지, 13:92-106	진도군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총 919마리 황구와 백구의 체형 측정, 체고, 체장, 흉위, 흉심, 이간, 이폭, 이고 및 체중을 측정하고 성별, 모색별 차이를 분석함	
1986 김윤규외 4인	진도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사. 진도개보호육성위원회 보고서, 전라남도 진도군. 13~30	진도군 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 250마리를 대상으로 23개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조사함	
2005 박영석 외8인	진도개의 체형-몸통과 다리, 동물자원과학회지, 47(5) 1~8, XIII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2006, 600p	진도개 기본체형에 관한 지표를 얻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1999년 12월 까지 진도군내 사육중이며 진도개 심사에 합격하여 전자칩이 삽입된 총 1,985 마리 중 약 10%인 195마리를 무작위 선정 후 총 18부위를 측정함 - 체고부위(체고, 흉심, 십자부고, 복심) - 체장부위(체장, 전구장, 중구장, 후구장) - 체폭부위(견폭, 흉폭, 관골폭, 흉위, 복위, 복폭) - 발목부위(앞발목부위 폭, 두께, 뒷발목부위의 폭, 두께) - 체고 대 체장 비(체장÷체고×100), - 체고 대 흉심 비(흉심÷체고×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도구 - Vernier caliper (Absolute Digimatic, Mitutoyo Corp., Japan) - 특수제작 소형Vernier caliper형 계측자(측정오차:±1mm), 25cm - 특수제작 대형Vernier caliper형 계측자(측정오차:±2 mm), 80cm - tape형 계측자 (Hoeschstmass, Germany)
2006 김상기 외7인	진도개의 체형-머리, 동물자원과학회지, 48(2), 913~918, XIII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2006, 599p	진도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머리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지수화를 위해 실시함. 진도군내 사육중이며 심사에 통과한 195마리의 머리 총 14부위 - 두개부위(두개장, 안면장, 두장, 두폭, 두심) - 귀부위(이고, 이간, 이폭, 내이장, 외이장) - 코부위(전비폭, 전비심, 후비폭, 후비심) - 두개지수(두폭 ÷ 두장 × 100), - 안면장지수(안면장 ÷ 두장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방법 - 긴장해소 노력 - 1마리 측정시 1시간 이상 소요 - 측정부위는 2회 반복 측정 후 평균 기록
2006 김상기 외7인	진도개의 체형-꼬리 한국애완반려동물학회지 XIII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2006, 598p	진도개의 꼬리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사진 촬영 후 분석 - 상관관계 분석 - 유의성 분석

별첨 3. 진도개 성별 체고 및 체고대 체장비(진도개표준체형 및 계측치)

구분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 보호대책 위원회(10인)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0인)	1969. 7.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1인)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9인)	1979.11. 23 진도개심의위원회 4차회의 (10인)	1985. 6. 12 진도개심의위원회 5차회의 (11인)	1998.5.7~ 2000.5.6 진도개심의위원 1기(15인)	2002.9.27~ 2004.9.26 진도개심의위원 3기(15인)
----	-----------------	------------------------------------	--------------------------------------	-------------------------------------	---	--	--	---	---

체고	수 43~59cm 암 40~53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120	수 42.5~59cm 암 39.5~53cm 체장 대 체고비 100 : 110	수 55~60cm 암 50~55cm -- --	수 50~55cm 암 45~50cm -- --	수 45~58cm 암 43~53cm -- --	좌 동	좌 동	수 48~53cm 암 45~50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	수 48~53cm 암 45~50cm 체고 대 체장비 100 : 110
----	---	---	------------------------------------	------------------------------------	------------------------------------	-----	-----	---	---

Character	Sex	1940. 2. 森蔦三	1966. 6. 9 진도견보호대책	1967. 5. 7 진도개심의위원회 1차회의	1969. 7.8 진도개심의위원회 2차회의	1971 박종만	1977. 4. 13 진도개심의위원회 3차회의	1986 김윤규 외 4인	1998.~2004. 진도개심의위원 1~3기	2005 박영석외8인
Wither Height	Dogs	43~59cm	42.5~59cm	55~60cm	50~55cm	Y46.41±0.21 W46.27±0.27	45~58cm	48.07±4.13	48~53cm	50.67±2.46
	Bitches	40~53cm	39.5~53cm	50~55cm	45~50cm	Y44.68±0.10 W42.57±0.17	43~53cm	45.30±3.21	45~50cm	47.48±2.50
	Average	--	--	--	--		--		--	48.21±2.85
Body Length	Dogs	--	--	--	--	Y 53.05±0.21 W53.97±0.33	--	51.99±3.66	--	52.99±2.44
	Bitches	--	--	--	--	Y52.17±0.11 W52.57±0.17	--	49.28±3.30	--	50.33±2.92
	Average	--	--	--	--		--		--	50.96±3.05
Wither height/ body length	100:110~120	100 : 110			YD 114.32 WD 116.64 YB 116.8 WB 117.27		D 108.2±8.2 B 108.6±8.9	100 : 110	D 104.7±5.0 B 106.1±6.1 A 100 : 106	